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총괄 |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한승룡 경제분석관

작성 | 한승룡 김상용 천경록 홍지은 백기홍
황종률 김원혁 황소정 조은영 경제분석관

지원 | 김금아 행정실무관
강태용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02) 6788-4749 | ps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V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제1장 총론

I.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현황 / 3	
1.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의의 및 추진체계	3
2. 총괄 현황	6
3. 성과지표 달성 현황	7
II.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종합 / 9	
III. 성평등 개선의 경제적 효과 / 19	
[BOX] 남성 및 여성 1인당 GNI 산출식	25

제2장 성평등 분야별 분석

I. 국가성평등지수 / 29	
1. 개요	29
2.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32
II. 성평등 분야별 주요 지표 / 35	
1. 경제활동 분야	35
2. 복지 분야	38
3. 교육·직업훈련 분야	43
4. 가족 분야	46
5. 보건 분야	49
6. 안전 분야	54
7. 문화·정보 분야	59
8. 의사결정 분야	62

제3장 주요 부처별 분석

I. 부처별 성인지 결산 분석결과 종합 / 69	
1. 부처별 결산 현황	69
2. 부처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71
3.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	73
II. 부처별 분석 / 76	
1. 대법원	76
2. 기획재정부	79
3. 교육부	82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
5. 행정안전부	96
6. 문화체육관광부	101
7. 농림축산식품부	108
8. 보건복지부	112
9. 고용노동부	118
10. 성평등가족부	127
11. 해양수산부	136
12. 중소벤처기업부	140
13. 국가인권위원회	148
14. 경찰청	151

제1장

총론

1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의의 및 추진체계

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의의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부문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의 작성, 성인지 결산 및 기금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의 작성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최초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이 기금사업까지 확대되고, 성평등 기대효과·성별 수혜분석·성과목표 등이 주요 분석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2021년부터 협의회와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 및 제73조의2¹⁾에 따라 성인지 사업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²⁾에 따라 결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1)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부속서류로 제출된다.

나. 성인지 예·결산 추진체계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추진체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3), 제28조의2⁴⁾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⁵⁾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예산과 결산의 소관 기관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성인지 결산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며, 각각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작성지침 및 작성서식과 함께 각 부처에 배

2)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성별 수해분석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성별 수해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5)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포한다. 작성 관련 교육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예·결산서 작성지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작성한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평가·심의하고,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각 부처는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한다. 각 부처가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가, 성인지 결산서는 재정경제부가 취합하여 검토 후 예산안·결산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성인지 예·결산 추진체계]

구분	담당기관	역할 및 기능
제도 총괄	기획 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대상사업 선정기준 포함) 수립 및 통보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제작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 취합검토 및 국회 제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주관)
	재정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 제작(총괄) 부처별 성인지 결산서 취합·검토 및 국회 제출
제도 지원 및 협조	성평등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제작 협조(지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 지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컨설팅(지원)
	성인지 예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성인지 예·결산서 자료 취합 지원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2026년 5월 29일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중앙관서의 수는 35개로 2024회계연도의 40개보다 5개 감소하였고, 대상사업의 수는 283개에서 266개로 17개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의 집행규모는 예산현액 26조 8,720억원 중 26조 6,074억원(99.0%)으로 2024회계연도의 23조 7,453억원 대비 2조 8,621억원 증가하였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우 성인지 결산서 작성기관은 전년의 40개 대비 5개 감소한 35개이고 대상사업 수는 전년의 206개 대비 15개가 감소한 191개이다. 집행규모는 예산현액 10조 4,056억원 중 10조 2,777억원(98.8%)이 집행되어 전년의 9조 4,582억원 대비 8,195억원이 증가하였다.

기금의 경우 성인지 결산서 작성기관은 전년의 14개에서 3개 감소한 11개이고 대상사업 수는 전년의 77개 대비 2개 감소한 75개이다. 집행규모는 지출계획현액 16조 4,664억원 중 16조 3,297억원(99.2%)이 집행되어 전년의 14조 2,871억원 대비 2조 426억원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4 집행액 (A)	2025			2024 대비 (C-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예산 (일반·특별회계)	집행액	94,582	104,056	102,777	98.8	8,195
	기관수	40	-	35	-	△5
	사업수	206	-	191	-	△15
기금	집행액	142,871	164,664	163,297	99.2	20,426
	기관수	14	-	11	-	△3
	기금수	27	-	24	-	△3
	사업수	77	-	75	-	△2
합계	집행액	237,453	268,720	266,074	99.0	28,621
	기관수	40	-	35	-	△5
	사업수	283	-	266	-	△1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3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총 339개의 성과지표 중 27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은 80.8%이다. 2025회계연도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전년대비 0.9%p 상승하였으나,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성과지표 달성률을 기록하였던 2022회계연도 대비 0.7%p 하락하였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p)

구분	2024 달성률 (A)	2025			2024 대비 (D-A)
		성과지표 (B)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 (C)	달성률 (D=C/B)	
예산사업	79.7	240	194	80.8	1.1
기금사업	80.4	99	80	80.8	0.4
합계	79.9	339	274	80.8	0.9

주: 대상사업 수와 성과지표 수는 일부 성인지 사업에서 성과지표를 2개 이상 설정함에 따라 차이 발생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연도별 성과지표 달성률 추이]

(단위: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성과지표 수	380	437	383	368	339
달성 수	295	356	304	294	274
달성률	77.6	81.5	79.4	79.9	80.8

자료: 대한민국정부, 연도별 「성인지 결산서」

정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대과제 중 하나인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된 72개 성인지 예산사업을 2025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성인지 예산사업 전체의 성과지표 달성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총 91개 성과지표 중 68개를 달성하여 74.7%의 달성률을 보였다.

[2025회계연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p)

구분	2024 달성률 (A)	성과지표 (B)	2025		2024 대비 (D-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 (C)	달성률 (D=C/B)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73.7	91	68	74.7	1.0

주: 대상사업 수와 성과지표 수는 일부 성인지 사업에서 성과지표를 2개 이상 설정함에 따라 차이 발생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한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역시 전체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총 44개 성과지표 중 35개가 달성되어 79.5%의 달성률을 보였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구분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B)	달성률(C=B/A)
성별영향평가 사업	44	35	79.5

주: 대상사업 수와 성과지표 수는 일부 성인지 사업에서 성과지표를 2개 이상 설정함에 따라 차이 발생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24개 사업에서 ① 성인지 대상사업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 ②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 ③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④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 ⑤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확인되었다.¹⁾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단순한 성별 수혜 현황 및 집행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재정사업이 성평등 수준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 개선과 예산 편성에 환류하는 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 참여자 수나 신청률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성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대상사업 선정부터 집행·결산 및 차년도 예산 편성까지 성평등 효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개별 부처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진행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해당 사업이 성평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는 경우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성평등 수준 제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신청·선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별도 조치가 없고, 여성농업인 선정 비율은 사업효과가 아니라 사후적인 인구 통계 결과에 가까우므로, 집행 과정에서 성별 격차 완화 요소가 부족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은 그 목적이 근로감독관의 일반적인 업

1) 개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 ‘주요 부처별 분석’에서 다룬다.

무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성별 격차 완화나 성평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

한편,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복권사업비' 세부사업의 '판매수수료' 내역 사업의 경우, 판매사업자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선발되어 경제적 편익을 얻게 되므로, 성인지 대상사업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2025회계연도)]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사유
1	농림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영농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	신청·선발 과정에서 성별 에 따른 별도 조치가 없고, 여성농업인 선정 비율은 사업효과라기보다 사후적 인 인구통계 결과에 가까 우며, 집행 과정에서 성별 격차 완화 요소가 부족하 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서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역량강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강화와 근로감독·노사지 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로감독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경비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성별 격차 완 화나 성평등과의 직접적 인 관련성이 낮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예산도 별도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 로 성인지 대상사업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사유
3	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 교류를 통해 북한이탈 주민의 정서적·경제적 안정 과 남한사회 정착 지원	동 사업은 성별 격차 해소 나 성평등 증진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여성 참여 비율 역시 사업 대상자의 성별 구성에 따 른 결과이므로 성인지 대 상 사업으로서의 적절성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4	기획재정부 (현 기획예산처)	복권사업비 (판매수수료)	복권 판매사업자에게 복권 판매액의 고정 요율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	판매사업자가 장애인·기 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 층 등 취약계층에서 선발 되어 상당한 경제적 편익 을 얻으므로 성인지 대 상 사업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

(2) 성과지표의 부적절 및 보완 필요

정부는 예산사업이 성평등 제고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성평등 제고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지표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대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성별 지원자 격차의 원인과 실제 수혜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신산업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지원’ 사업의 현 ‘취업박람회 여성구직자 참여율’ 성과지표는 실제 여성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의 현 ‘여성인재 DB 활용도’는 인재풀 활용 실적만 보여줄 뿐 사업 전체의 성평등 효과를 보여주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포용성장전문연구인력양성(R&D)’ 사업은 사업 성과를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라는 총량 지표로 측정하고 있어 여성 장애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나 성별 수혜 균형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 현황(2025회계연도)]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부적절 및 보완 필요
1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저소득층 성인 및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자기 계발·자아실현을 지원	‘등록 사용 기관 수’는 수혜자의 역량 향상이나 성별 수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자격증 취득·취업 등 자기계발 성과와 성별 수혜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
2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성별 선발 비율’은 성별 지원자 대비 선발률만 비교하므로 여성 수혜자가 전체의 74.9%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수혜 규모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성별 지원자 격차의 원인과 실제 수혜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
3	교육부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어린이집 평가 운영)	전체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관리	기존 ‘A·B등급 비율’은 등급제 폐지로 측정할 수 없고, 대체 예정인 ‘평가 개소수’는 단순 양적 지표이므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활용한 개선 비율이나 보육환경 항목 충족률 등 질적 성과지표가 필요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부적절 및 보완 필요
4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해양수산 신산업 중소·중 견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 리 창출을 지원	취업박람회 여성구직자 참여율은 실제 여성 취업 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여성 취업·인력양성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로 개선할 필요
5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관광 분야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 광벤처기업을 발굴·지원	'여성창업자 대상 특화교 육 수료비율'은 전체 사업 에서 여성의 창업 참여와 수혜가 확대되었는지를 측 정하기 어려우므로, 여성 수혜 확대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
6	성평등 가족부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재 발굴·관리, 공 공부문 의사결정 참여 확 대, 기업 성별다양성 교육 등을 지원	'여성인재 DB 활용도'는 인재풀 활용 실적만 보여 주며 정부위원회·공공기 관 진출, 기업 조직문화 개선 등 사업 전체의 성평 등 효과를 대표하지 못함. 실제 위촉·임명률, 법정 성별비율 준수율, 기업 제 도개선 성과 등을 반영할 필요
7	성평등 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를 지 원하여 건강권을 보장	신청률과 중앙부처의 교 부·지출 실적만으로는 실제 바우처 이용과 지원 금 사용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2025년 대상자 대비 실제 이용률은 75.6%, 생생액 대비 사용 률은 77.5%였으므로 실 제 이용률·사용률과 실 수혜자 수를 관리할 필요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부적절 및 보완 필요
8	성평등 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상담, 보호, 의료 · 법률지원, 치료회복 및 자립지원을 제공	성과지표의 지원 실적 198,190건과 성평등 효 과분석상 수혜자 198,190 명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지원 건수와 실수혜자 수 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실 수혜 인원, 서비스 유형별 지원 건수, 1인당 평균 지 원 건수를 구분하여 성과 지표를 관리할 필요
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콘텐츠 진흥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기반조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사업 화 및 신직업 창출을 지원	- '성별 만족도 차이'는 지원 규모나 참여자의 기대 수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인력 육성이 라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움. - 여성 창작자 지원·육 성 및 사업화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
1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포용성장전문 연구인력양성 (R&D)	이공계 장애 대학·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연구역량 강화 와 과학기술인 양성을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라는 총량 지표만으로는 여성 장애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나 성별 수혜 균형을 확인하기 어려움. 여성 참여 율이나 성별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 등을 지표로 설정할 필요

(3)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정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정하면서도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하지 않아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은 2025년 실적이 목표치의 약 4.5배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여성창업자 수혜비율이 매년 목표치를 4.6%p~7.6%p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사업 현황(2025회계연도)]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1	대법원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법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해 법원 구성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최근 3년간 96.8~97.7점 수준인데도 목표치는 실적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달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최근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성차별 예방 사이버 과정)	공무원·교사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차별 예방 사이버교육을 운영	2025년 실적 25만 5,382명은 목표 5만 7,177명의 약 4.5배이며, 연도별로 포함 과정도 달라 실적 비교의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수강인원 집계 범위를 통일한 뒤 최근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3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	여성창업자 수혜비율이 2021~2025년 매년 목표치를 4.6~7.6%p 상회하고 있어, 여성 특화 프로그램 등에 따른 최근 실적을 반영해 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

(4) 성과목표 달성 노력 제고 필요

정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성평등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사업의 경우, 여성인력 채용지원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2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한 바, 하락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의 경우, 모집·교육·취업 단계별 여성 참여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사업의 경우, 여성 참여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달성 노력 필요 사업 현황(2025회계연도)]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 노력 제고 필요
1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패키지·초격차 스타트업 1000+·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와 기술 분야에 따라 사업화·성장 지원을 제공	사업선정 여성 비율이 2023년 20.8%에서 2025년 18.5%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여성창업자 별도 트랙 유지에 그치지 않고 기술창업 분야의 여성 접근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과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 노력 제고 필요
2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R&D)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 여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여성인력 채용지원 비율이 2023년 33.0%에서 2025 년 28.1%로 하락하고 2 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하 고 있으므로, 사업 홍보와 참여 독려 외에 채용·근 무환경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
3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응자)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경영 안정과 자 생력 제고를 지원	여성 소상공인의 자금 접 근을 저해하는 심사·정 보·업종 요인 등을 분석 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할 필요
4	고용 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 장비확충(플리텍) (하이테크과정)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신산업·신기술 분야 교 육훈련을 제공하여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	단순히 공학계열 선호도 나 사업물량 확대를 원인 으로 제시하기보다 모집 ·교육·취업 단계별 여 성 참여 저해요인을 분석 하고 개선할 필요
5	행정 안전부	사회재난교육훈련및 역량지원강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 재난 대응교육을 실시하 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여성 참여율 목표치가 전 년대비 낮아졌음에도 미 달성하였으므로 여성 참 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성과를 제 고할 필요
6	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APO 시스템 유지보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과 재발우려대상자의 정 보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 원하는 시스템 운영	재발우려대상자 모니터링 비율이 목표 400% 대비 291%에 그쳤으므로 목표 하향보다 모니터링 실적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

(5)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사항 모색 필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영역과 돌봄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내용상 개선사항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만을 지원하는 현행 사업 구조로 인해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 가구 전체의 임신·출산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사업 대상과 범위를 재검토하여 돌봄 영역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모색 필요 사업 현황(2025회계연도)]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개선사항 모색 필요	사업내용
1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 을 고려하여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	비장애여성보다 임신·출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여 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

III

성평등 개선의 경제적 효과

2025년 여성 1인당 GNI는 전년대비 6.3% 증가하여, 남성 1인당 GNI 증가율 3.8%를 상회하지만, 여성의 1인당 GNI는 남성 1인당 GNI의 5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양성평등 수준은 교육·건강·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경제적 성과는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소득 수준 차이는 경제활동 참여, 노동시장 성과 및 임금 수준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서 성별 간 경제적 격차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양성 간 소득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성별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와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한다. GDI는 건강, 교육, 소득의 세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반영하며, 이 중 경제 부문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 수준 차이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특히 성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국가의 경제적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¹⁾ 우리나라 성별개발지수 순위는 2023년 184개 국가 중 106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소득 부분에서는 여성 1인당 GNI 대비 남성 1인당 GNI 수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184개국 중 99위를 기록하였다.²⁾

성별개발지수(GDI) 중 소득 부문이 특히 낮은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 등 성평등 정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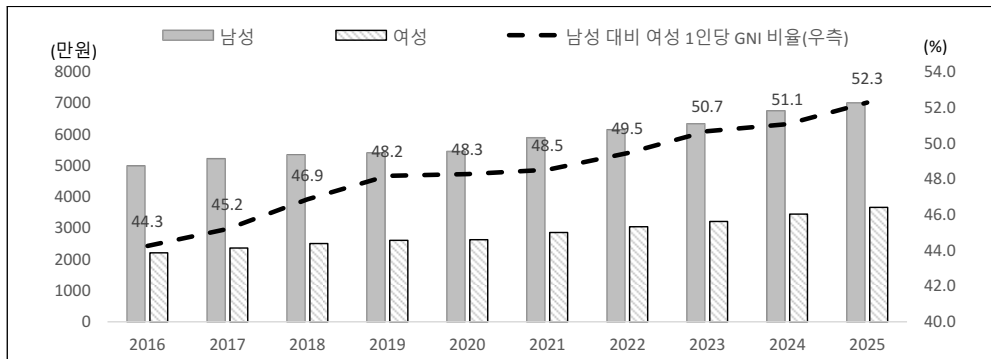
1) 자세한 분해 방법은 [BOX]를 참조

2)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193개국 중 12위를 기록하여 성별개발지수(GDI) 순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불평등지수는 여성의 건강, 교육, 경제활동 및 정치참여 기회를 중심으로 성별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반면, 성별개발지수는 건강·교육·소득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실제로 달성한 성과의 격차를 평가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성평등의 기회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성과를 포함한 결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책이 경제적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발표된 성별개발지수의 여성 및 남성 1인당 GNI 자료를 2025년까지 확장하여 성별 소득 격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2024)의 「2025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제시한 2025년 여성 및 남성 1인당 GNI 격차와 실제 추정치를 비교하여 성별 소득 격차가 당초 전망에 비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추정 결과, 2025년에도 여성과 남성 간 1인당 GNI 격차는 여전히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율 기준으로 보면 여성의 1인당 GNI가 남성의 1인당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성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1인당 GNI는 2016년 남성의 44.3%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52.3%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2016~2025년 동안 여성의 1인당 GNI가 연평균 5.9% 증가하여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3.9%)을 상회한 데 따른 결과이다. 반면,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성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간 1인당 GNI 격차는 2016년 2,782만 원에서 2025년 3,34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즉, 상대적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절대적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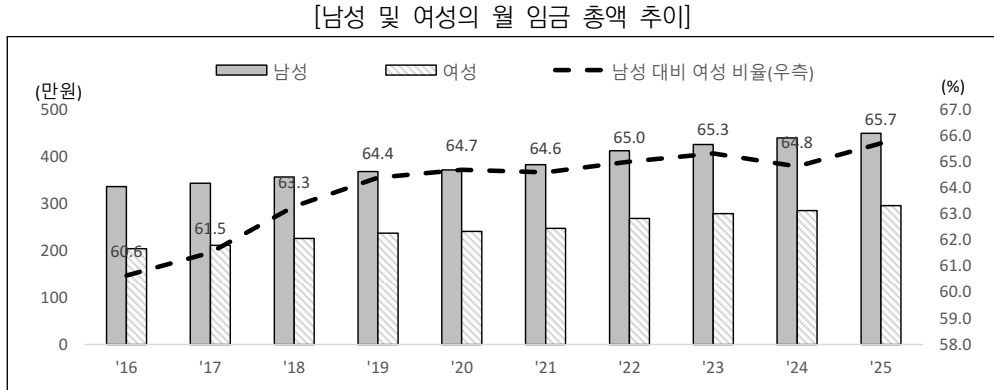
[남성 및 여성의 1인당 GNI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양성간 GNI의 변화를 분해해 보면, 두 집단의 GNI 격차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GNI는 성별 임금 수준과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이용해 성별 임금 총액의 비중을 추정 후, 이를 국가 GNI에 배분하여 남성과 여성의 1인당 GNI를 산출한다. 남성과 여성의 월 임금 총액에서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6년 60.6%에서 2025년

65.7%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집단 간의 명목 임금 격차 수치는 증가하고 있어서 양성간 경제 차이도 줄어들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2016년 132만원이었던 양성 간 임금 총액 격차는 2025년에는 154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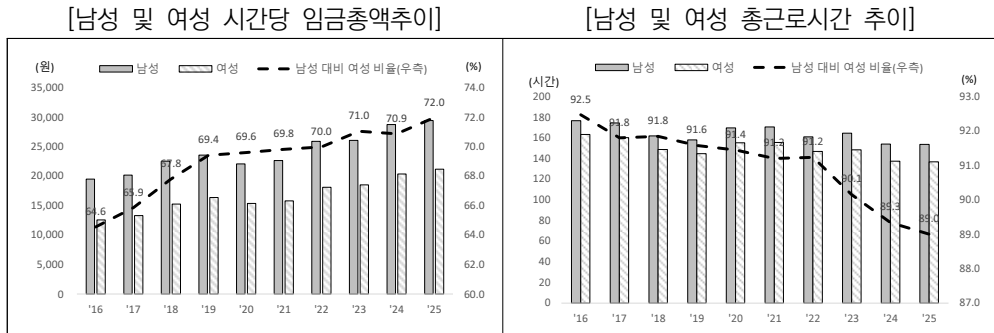
임금총액은 시간당 임금총액³⁾과 총근로시간으로 분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성별 간 시간당 임금총액의 상대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 대비 2016년 64.6%에서 2025년 72.0%로 상승하였다. 시간당 임금총액의 절대적 격차는 2016년 6,903원에서 2025년 8,247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24년(8,371원)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성별 간 총근로시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총근로시간 차이는 2016년 13.3시간에서 2025년 16.9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 격차도 확대되어 남성의 총근로시간 대비 여성의 총근로시간 비율은 같은 기간 92.5%에서 89.0%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이 여성보다 초과근로나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⁴⁾ 수가 비중이 더 많은데 기인할 수 있다. 실제로 남

3) 시간당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일정기간(보통 1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기본급+초과근로수당+상여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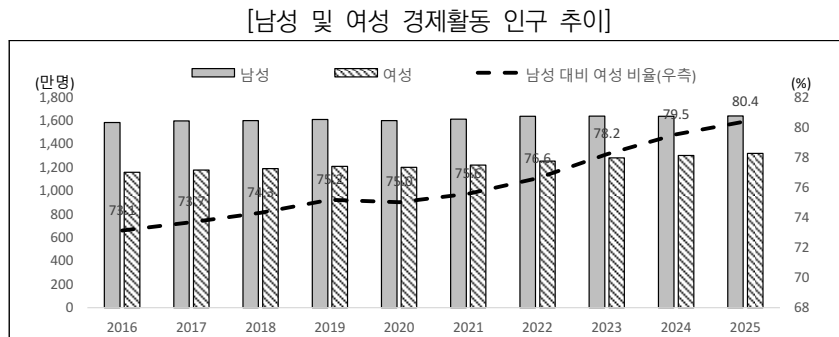
4)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성 시간제 근로자는 2025년 119만 명인 반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304만 명으로 2배 이상 많은 수를 나타냈다.)⁵⁾ 이상의 결과는 성별 임금총액 격차의 변화에서 시간당 임금총액은 격차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총근로시간은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성별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차이는 2016년 425만 명에서 2025년 32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남성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16년 73.1%에서 2025년 80.4%로 상승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규모의 증가세가 남성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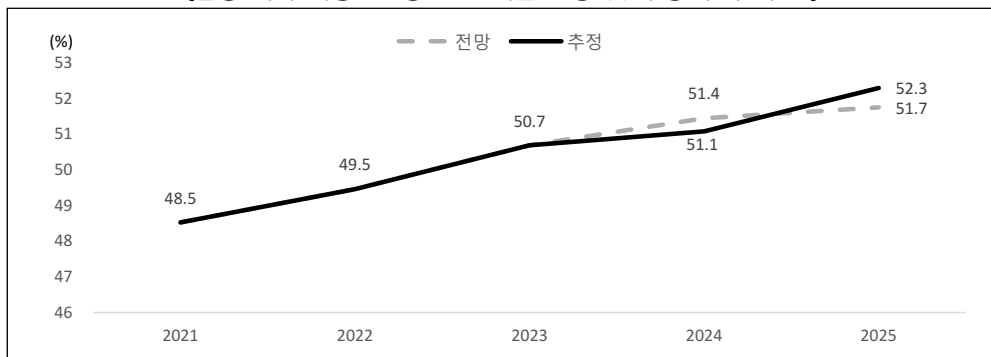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5)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국회예산정책처(2024.10.)의 「2025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2024년 및 2025년 남성과 여성의 1인당 GNI를 전망하였다. 이후 2025년 경제지표의 실적이 확인됨에 따라, 실제 경제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남성과 여성의 1인당 GNI가 당시 전망치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1인당 GNI 비율을 2024년 51.4%, 2025년 51.7%로 전망하였다. 반면, 실제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추정한 남성 대비 여성의 1인당 GNI 비율은 각각 51.1%와 52.3%로 나타났다. 전망치와 추정치를 비교하면, 남녀 총임금 격차는 전망보다 실제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전망보다 실제가 더 작게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 1인당 GNI 비율 전망 및 추정 수치 비교]



주: 1) 전망치는 「2025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전망한 2024, 2025년 남성 대비 여성 1인당 GNI 비율
 2) 추정치는 한국은행 및 국가데이터처의 2024, 2025년 실측 값을 활용하여 추정한 남성 대비 여성 1인당 GNI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남성 대비 여성의 총임금 비율은 2024년 65.7%, 2025년 66.1%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추정치는 각각 64.8%, 65.7%로 전망치를 하회하였다. 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 비율은 2024년 43.9%, 2025년 44.0%로 전망되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44.2%, 44.6%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효과는 전망치를 상회하였으나, 여성의 임금 수준은 전망보다 낮게 나타났다. 2024년에는 임금 수준 하락의 영향이 경제활

동참가 확대 효과를 상회하여 남성 대비 여성의 1인당 GNI 비율이 전망치를 소폭 하회한 반면, 2025년에는 경제활동참가 확대 효과가 임금 수준 하락의 영향을 상회 하면서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에 힘입어 남성 대비 여성의 1인당 GNI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상대적인 성별 소득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몇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경제활동참가 확대만으로는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효과가 임금 수준 하락의 영향을 상회하면서 남성 대비 여성의 1인당 GNI 비율이 전망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임금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참가 확대 중심의 양적 증가가 저임금 또는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규모는 확대되더라도 소득 격차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성평등 정책은 경제 활동참가율 제고뿐만 아니라 양성간 생산성 격차 해소,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임금 하락 방지,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 개선을 함께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대적 격차와 절대적 격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1인당 GNI는 남성 대비 비율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대 금액 기준에서는 남녀 간 1인당 GNI 격차가 오히려 확대 되었다.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총액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비율 지표 만으로는 성평등의 개선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규모와 임금 수준이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 격차가 축소되더라도 실제 소득의 절대적 차이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적 비율뿐 아니라 절대 금액 기준의 격차도 함께 제시하여 정책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 남성의 1인당 GNI는 성평등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향후 성인지 예산과 성평등 정책의 성과평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임금 수준, 고용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성별 1인당 GNI를 대표 지표로 활용하고, 남성 대비 여성의 1인당 GNI

비율과 함께 절대 금액 기준의 성별 소득 격차를 병행하여 공표·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 격차 해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BOX] 남성 및 여성 1인당 GNI 산출식

□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는 성별개발지수(GDI)를 통해서 남성 및 여성 1인당 GNI 산출식을 제공

- 유엔 개발 계획에서는 건강, 교육 경제 부문의 성별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성별개발지수를 발표
- 남성 및 여성의 1인당 GNI는 경제 부문의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

□ 남성 및 여성의 1인당 GNI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GNI, 남성과 여성의 인구, 경제활동 인구,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

- 임금에 대한 여성의 몫(The female share of the wage bill : S_f)

$$- S_f = \frac{W_f / W_m \times EA_f}{W_f / W_m \times EA_f + EA_m}$$

- W_f / W_m :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EA_f :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 비율
- EA_m :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남성 비율
- 임금에 대한 남성의 몫 : $S_m = 1 - S_f$

- 여성 1인당 GNI($GNIpc_f$)

- $GNIpc_f = GNIpc \times (S_f / P_f)$
- $GNIpc$: 국가 1인당 GNI
- $P_f = N_f / N$: 전체 인구 중 여성 인구 비중
- N : 전체 인구, N_f : 여성 인구
- 남성 1인당 GNI($GNIpc_m$) : $GNIpc_m = GNIpc \times (S_m / P_m)$

제2장

성평등 분야별 분석

1 개요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아래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성평등보고서」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와 영역·분야별로 성평등 수준 추이를 분석하여 변화의 원인과 특성을 진단하여 제공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에 대한 8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측정되었다(지표체계('09)). 다만, 지표체계가 오래 유지되면서 변화하는 사회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책 형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¹⁾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지표체계를 개편하는 연구를 추진하였고,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2023년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를 최종 확정하였다(지표체계('23)).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는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7개 영역, 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정부는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부터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를 적용하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기존 지표체계와 개편된 지표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1)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국가성평등지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20.11.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의 비교]

'09년 지표체계			'23년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25개)	목표	영역	지표(23개)	
성평등한 사회 참여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장관 비율	
		관리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관리자 비율	
	교육 · 직업 훈련	교육	평균 교육년수	자원의 동등한 접근	교육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경제 활동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고용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정규직 비율
			성별임금격차			노동시장 직종분리
			상용근로자 비율			경력단절여성 비율
여성의 인권 · 복지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평등한 관계	소득	임금 격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빈곤위험(비빈곤율)	
		장애인고용률			국민연금 수급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수명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비인지율	
	안전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돌봄	가사노동시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노인돌봄 분담	
성평등 의식 · 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양성 평등 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셋째 아(兒) 이상 출생성비		성차별 경험률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 · 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주: 가시적인 비교를 위해 일부 분야 및 영역 순서를 재배열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다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여전히 지표체계('09)에 따라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제출된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기존 지표체계('09)에 따라 제출된 데에 따른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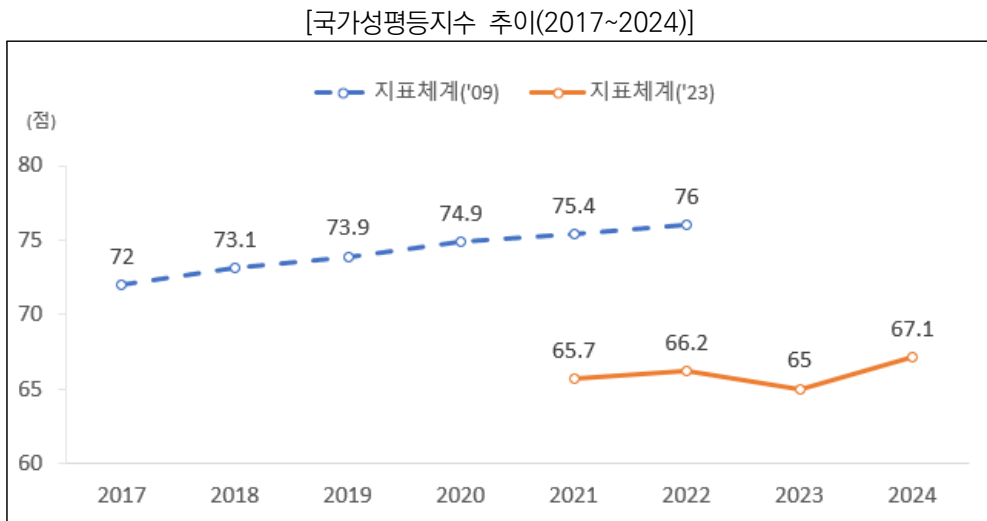
따라서 이하 「제2장 제1절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23)를 바탕으로 전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제2장 제2절 성평등 분야별 주요 지표」에서는 기존 지표체계('09)에 따른 분야별 주요 지표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살펴 「제3장 주요 부처별 분석」 부분의 사업별 분석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한편 2025년 작성된 「2026년 성인지 예산안」부터 새로운 지표체계('23)에 따라 제출되어, 27년 제출될 「202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역시 지표체계('23)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다.

가. 현황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전년(65.0점) 대비 2.1점 상승하였다.

2025년 12월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를 발간하여 2026년 4월에 공개하였다.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체계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가성평등지수를 살펴본 결과, 2022년에는 전년대비 상승, 2023년에는 전년대비 하락, 2024년에는 전년대비 상승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지표체계('09)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국가성평등지수가 상승하였던 것과는 상이한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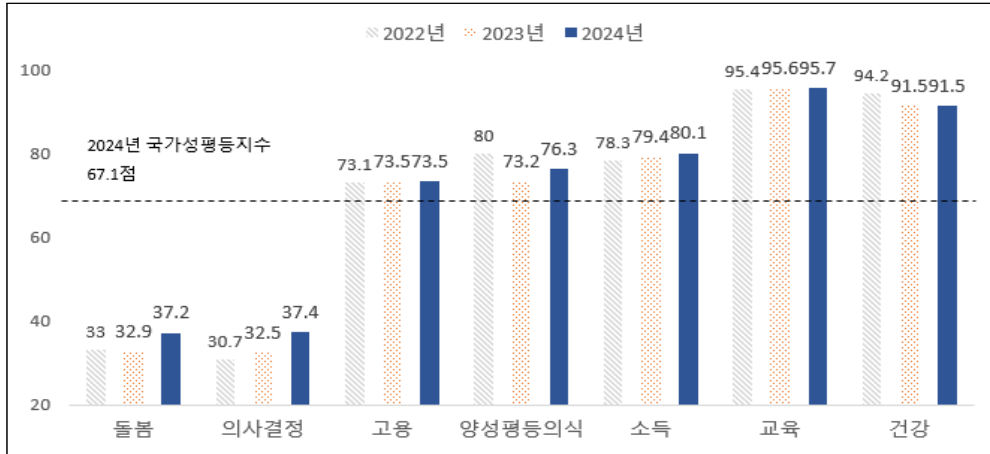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나. 영역별 주요 특징

7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고 특히 의사결정 영역과 돌봄 영역의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4년 수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 영역이 95.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 영역(91.5점), 소득 영역(80.1점), 양성평등의식 영역(76.3점) 순이다. 반면, 돌봄 영역은 37.2점으로 가장 성평등 수준이 낮고, 의사결정 영역이 37.4점으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수준 변화(2022~2024년)]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특히 의사결정 영역과 돌봄 영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의사결정 영역은 전년 대비 4.9점 상승하였는데, 이는 세부지표 중 ‘장관의 여성비율’ 점수가 2023년 20.0점에서 2024년 38.5점으로 18.5점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돌봄 영역 역시 전년 대비 4.3점 상승하였으며, 세부지표 중 ‘가사노동시간’ 점수가 30.7점에서 36.9점으로 6.2점, ‘육아휴직참여’ 점수가 34.5점에서 41.1점으로 6.6점 상승한 영향이 컸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2022년 80.0점에서 2023년 73.2점으로 하락한 뒤 2024년 3.1점 반등하였고, 소득 영역과 교육 영역도 각각 0.7점, 0.1점 상승하였다.

고용 영역과 건강 영역은 2024년 각각 73.5점, 91.5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영역 및 지표	성비	2023	2024	증감폭
국가성평등지수			65.0	67.1	2.1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32.5	37.4	4.9
	국회의원 비율	여성/남성	23.0	24.4	1.4
	장관 비율	여성/남성	20.0	38.5	18.5
	4급이상 공무원 비율	여성/남성	50.3	52.7	2.4
	관리자 비율	여성/남성	25.1	26.7	1.6
	법원·검찰·경찰관리자 비율	여성/남성	44.0	44.9	0.9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73.5	73.5	0.0
	고용률(15~64세)	여성/남성	79.8	80.9	1.1
	정규직 비율	여성/남성	77.6	75.7	-1.9
	노동시장 직종분리	지수	53.4	53.4	0.0
	(非)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83.0	84.1	1.1
	소득		79.4	80.1	0.7
	성별임금격차	여성/남성	71.0	70.9	-0.1
	빈곤위험	여성/남성	94.8	94.6	-0.2
	국민연금 수급률	여성/남성	72.4	74.8	2.4
	교육		95.6	95.7	0.1
	평균교육년수	여성/남성	91.1	91.4	0.3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여성/남성	100.0	100.0	0.0
	건강		91.5	91.5	0.0
	주관적 건강상태	여성/남성	81.3	81.3	0.0
건강수명	여성/남성	100.0	100.0	0.0	
스트레스 (非)인지율	여성/남성	93.1	93.1	0.0	
평등한 관계	돌봄		32.9	37.2	4.3
	가사노동시간	남성/여성	30.7	36.9	6.2
	육아휴직 참여	남성/여성	34.5	41.1	6.6
	노인돌봄 분담	남성/여성	33.4	33.4	0.0
	양성평등의식		73.2	76.3	3.1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43.7	43.7	0.0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81.3	89.0	7.7
	성차별 (非)경험률	여성/남성	94.7	96.1	1.4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II 성평등 분야별 주요 지표

1 경제활동 분야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경제활동 분야로 분류된 것은 18개 기관의 83개 세부사업으로 총 17조 5,77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9.2%이다.

[경제활동 분야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경제활동 분야' 주요 지표 ¹⁾		'경제활동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	4,309,155	99.8	
대표	성별임금격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우자)	4,184,200	99.2	
대표	상용근로자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우자)	1,835,800	100.0	
	고용률*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 자금(우자)	1,311,110	100.0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 자금(우자)	750,100	100.0	
	경력단절여성 비율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719,545	100.0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18,819	90.8	
	육아휴직 이용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R&D)	567,983	100.0	
	취업 장애요인 인식	등 18개 기관, 83개 사업				
				합 계	17,577,372	99.2

주: 1) 국가성평등지수 '경제활동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경제활동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는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지표

(1) 경제활동참가율¹⁾ 및 고용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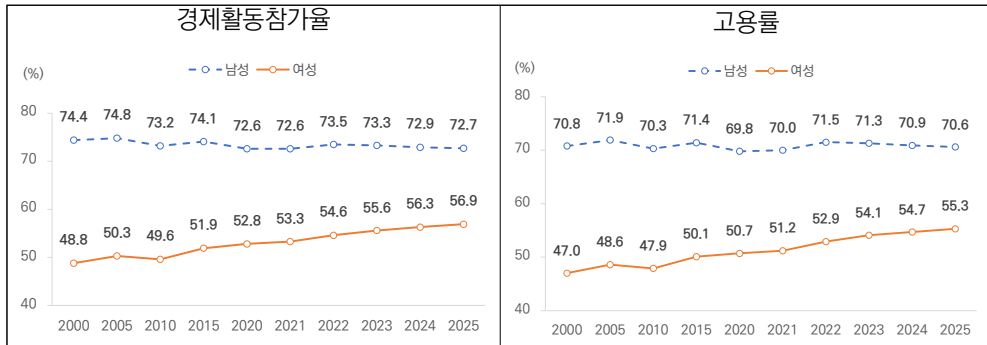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0년 23.6%p에서 2025년 15.8%p로, 고용률 격차는 2010년 22.4%p에서 2025년 15.3%p로 완화되었다.

2025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6.9%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7.3%p 상승하였다. 반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25년에 72.7%로 2010년 대비 0.5%p 하락하였다.

2025년의 여성 고용률은 55.3%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7.4%p 상승하였다. 반면, 2025년 남성 고용률은 70.6%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0.3%p 상승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성별 격차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2010년 23.6%p에서 2025년에는 15.8%p까지 완화되었고, 고용률 격차는 2010년에 22.4%p였지만 2025년에는 15.3%p로 축소되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노동공급의 척도

2)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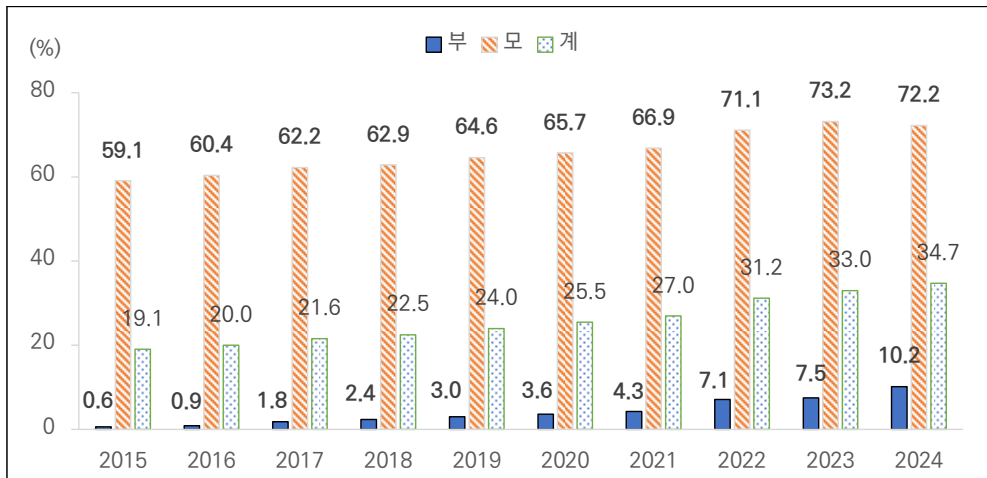
(2) 육아휴직 사용률³⁾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4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남녀 간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는 2015년 58.5%p에서 2023년 65.7%p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축소되어 2024년에는 62.0%p를 기록하였다.

2024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 10.2%, 모 72.2%로, 남녀 간 사용률 격차는 62.0%p로 나타났다. 2024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7%p 상승하면서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19.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34.7%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5~2023년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사용률 증가 폭 또한 여성보다 작아 남녀 간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2015년 58.5%p에서 2023년 65.7%p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소폭 감소한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남녀 간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는 62.0%p로 축소되어 전년 대비 3.7%p 감소하였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추이]



주: 2024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3) 해당 연도의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복지 분야로 분류된 것은 9개 기관의 37개 세부사업으로 총 4조 3,247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9.8%이다.

[복지 분야 주요 지표 및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복지 분야' 주요 지표 ¹⁾		'복지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공적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2,532,343	100.0	
대표	실업급여 지급 현황	보건복지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534,650	100.0	
대표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농림축산식품부	발달장애인 지원	306,910	100.0	
↔	공적연금제도 수급률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167,388	100.0	
	등록장애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82,678	99.9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국방부	군어린이집 운영지원	63,178	99.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등급별 판정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64,452	100.0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수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63,953	100.0	
		등 9개 기관, 37개 사업				
		합 계			4,324,705	99.8

주: 1) 국가성평등지수 '돌봄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돌봄 및 사회서비스 분야' 및 '사회보장 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는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지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관련 지표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는 2025년 1,003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6.0%를 차지한다. 국민연금 여성 가입률은 만18~65세 인구 대비 58.3%로 남성 가입률(64.8%)에 비해 6.5%p 낮다. 이 중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2025년 127만명(여성 국민연금 가입자의 12.6%)에 이른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휴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줄여 연금급여액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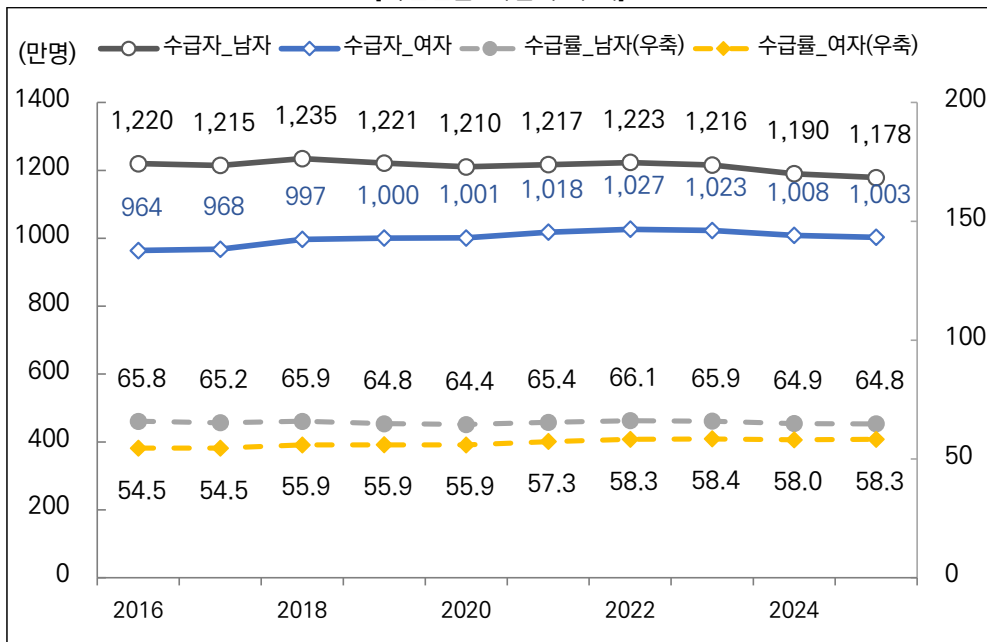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가입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 연금시대로 진입하였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3%의 낮은 보험료가 적용되었으나 보험료율이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되었다. 최근 제도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 인상되어 2033년에 13.0%에 이르고, 40년 납입 시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8년 43.0%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은 60세였으나 199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연도별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5년 약 2,184만명이며 남성 가입자는 1,178만명(전체 가입자의 54.0%), 여성 가입자는 1,003만명(46.0%)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는 1,462만명(67.0%), 지역 가입자는 641만명(29.4%), 임의 가입자는 333만명(1.5%), 임의계속 가입자는 455만명(2.1%)의 순이다. 국민연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납부예외제도¹⁾를 두고 있는

데, 지역가입자 중 약 280만명(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43.0%, 전체가입자의 12.7%)이 납부유예 중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가입(가능)연령인 만18~65세 인구 대비 2025년 61.6%이며, 여성 가입률은 58.3%로 남성 가입률(64.8%)에 비해 6.5%p 낮다. 납부유예자를 제외한 가입률은 53.7%이고 여성 가입률이 50.7%로 남성 가입률(56.5%)에 비해 5.8%p 낮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력 단절 이후 비정규직 및 취약 근로 형태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여성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인해 2025년 328만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주: 1) 가입률은 18~65세 인구 대비 가입자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통계」, 「장래인구추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실직·퇴사자 및 휴직자, 사업 중단 및 폐업자, 학생 및 수험생, 병역 의무 수행자,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자, 교도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득 없이 해외 유학을 떠나 현지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함. 다만 납부 유예기간 만큼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 연금액이 감소하고 최소 가입기간(10년)에 미달될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됨.

(2) 고용보험 피보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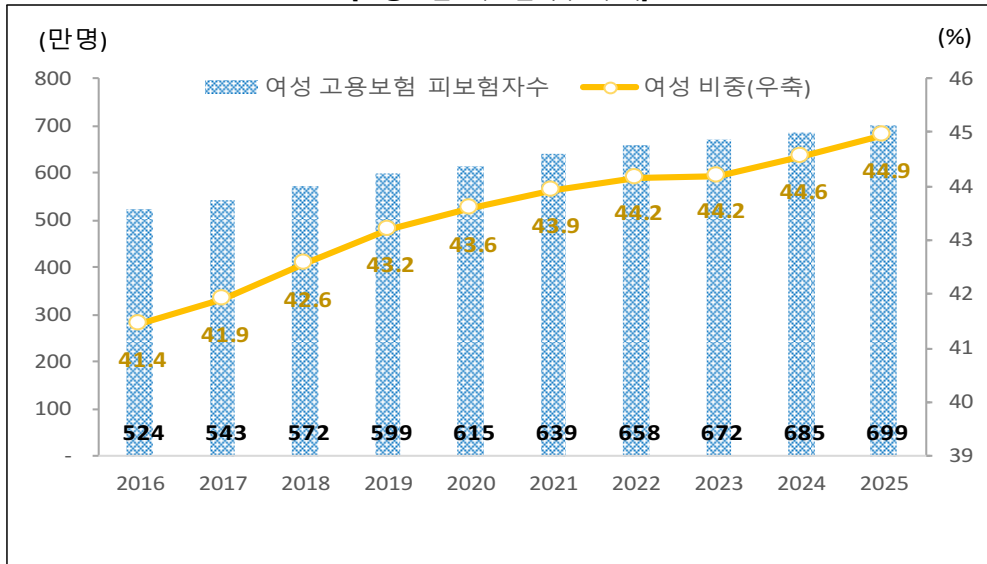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5년 말 699만명으로 2016년 이후 연평균 3.2%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2.3%)을 상회하였다. 이는 돌봄 및 대면서비스 수요 증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가입 요건 완화 등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 대비 54.5%에 불과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피보험 자격 취득자와 상실자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운영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5년 말 약 1,556만명으로 2016년(1,266만명)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였다. 여성 피보험자도 2016년 524만명에서 2025년 699만명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돌봄 수요와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 수요 증가,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가입 확대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대비 54.5%에 불과하다.

한편 여성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와 상실자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이후 피보험 자격 확대와 더불어 남성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데 기인한다. 참고로 여성의 피보험 자격 취득자와 상실자가 남성에 비해 2025년 말 각각 12.4%, 8.8% 많았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31.5%로 남성(2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분류된 것은 24개 기관의 98개 세부사업으로 총 2조 7,93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7.1%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주요 지표 및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교육·직업훈련 분야 주요 지표 ¹⁾ ’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평균 교육년수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593,833	99.6
대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543,471	90.1
대표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	291,798	97.0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275,522	99.6
	학교급별 취학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과기정통부)(R&D)	203,070	100.0
	학력·전공분야별 분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36,394	98.9
	학위별 취득자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08,301	95.3
	유학생 규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7,125	100.0
	고등학생 학업중단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선수양성지원	68,670	100.0
	평생학습 참여율	외교부	글로벌연수(ODA)	61,692	97.0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현황*	등 24개 기관, 98개 사업			
	재직자·실업자 직업훈련생	합 계			
	학교급별·직위별 교원수	2,793,013			
	사교육비 지출 현황	97.1			
	전공 및 직업의 일치도				
	교육수준별 취업률				

주: 1) 국가성평등지수 ‘교육·직업훈련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교육 및 훈련 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는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지표

(1) 고등교육기관 전공분야별 분포

고등교육기관 전공분야별 분포의 경우 여전히 성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좀처럼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전공 계열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졸업자의 40.7%가 공학계열 전공자인 반면 여성 졸업자의 공학계열 전공자 비율은 10.5%에 그쳐 공학계열의 성별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공학 이외의 계열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 전공자 비중이 높았으나 특히 교육계열(여성 10.4%, 남성 3.4%)과 의약계열(여성 14.4%, 남성 7.1%)에서 더 높았다. 전공자 분포의 성별 격차는 공학계열 30.2%p, 의약계열 7.4%p, 교육계열 7.0%p, 예체능계열 5.3%p, 인문계열 5.1%p, 사회계열 5.1%p, 자연계열 0.4%p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성별에 따른 전공 계열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 10년간 성별 격차가 감소한 계열(인문,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도 있으나 감소폭은 0.4~2.6%p 수준이며, 사회계열 및 교육계열에서는 격차가 소폭 증가하였다.

[성별,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비중 추이]

(단위: %, %p)

연도	성별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2014	남	6.0	25.6	2.6	41.2	10.1	5.4	9.0
	여	11.8	30.1	8.8	8.3	11.2	13.2	16.5
	성별 격차	5.8	4.5	6.2	-32.8	1.1	7.8	7.4
2024	남	6.9	23.3	3.4	40.7	9.7	7.1	8.9
	여	12.0	28.4	10.4	10.5	10.1	14.4	14.2
	성별 격차	5.1	5.1	7.0	-30.2	0.4	7.4	5.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2)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현황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10년 전 대비 전반적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전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중 남성은 66.3%, 여성은 33.7%로 성별격차가 32.6%p에 달하였다. 10년 전인 2014년의 성별격차(23.3%p)와 비교하면 9.3%p 증가한 수치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능장(94.2%), 기술사(90.6%), 산업기사(80.5%), 기사(76.5%), 기능사(67.4%) 순으로 남성 취득자 비중이 높았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만 여성 비율이 62.0%로 남성을 앞섰다.

2014년과 비교하면 기술사 및 기능장 취득자 구성의 성별격차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종목에서는 모두 확대되었고, 특히 산업기사의 경우 성별격차가 20.8%p 확대되었다.

[성별, 종목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비중 추이]

(단위: %, %p)

연도	성별	종목						
		전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2014	남	61.6	94.6	95.1	76.2	70.1	66.8	40.1
	여	38.4	5.4	4.9	23.8	29.9	33.2	59.9
	성별 격차	-23.3	-89.1	-90.2	-52.4	-40.2	-33.6	19.7
2024	남	66.3	90.6	94.2	76.5	80.5	67.4	38.0
	여	33.7	9.4	5.8	23.5	19.5	32.6	62.0
	성별 격차	-32.6	-81.2	-88.4	-52.9	-61.0	-34.9	24.1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가족 분야로 분류된 것은 5개 기관의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1조 2,56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9.9%이다.

[가족 분야 주요 지표 및 성인지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가족 분야' 주요 지표 ¹⁾		'가족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가사노동 시간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25	99.9
대표	셋째 아(兒) 이상 출생성비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474,975	100.0
대표	가족관계 만족도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145,404	99.6
대표	육아휴직자*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 지원	28,730	100.0
		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28,018	100.0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법무부	교정교화	11,229	99.8
	연령별 미혼 인구 비율	↔ 대법원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7,500	100.0
	혼인상태별 출생아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11	99.6
	여성 연령별 기대자녀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029	98.0
	세대구성별 가구 분포*	성평등가족부	가족역량강화 지원	1,291	81.2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830	100.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국세청	국세청 가족교실 운영	432	100.0
		등 5개 기관, 12개 사업			
		합 계		1,255,974	99.9

주: 1) 국가성평등지수 '가족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인구 및 가족 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지출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는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백기홍 경제분석관(ghbaek@assembly.go.kr, 6788-4750)

나. 주요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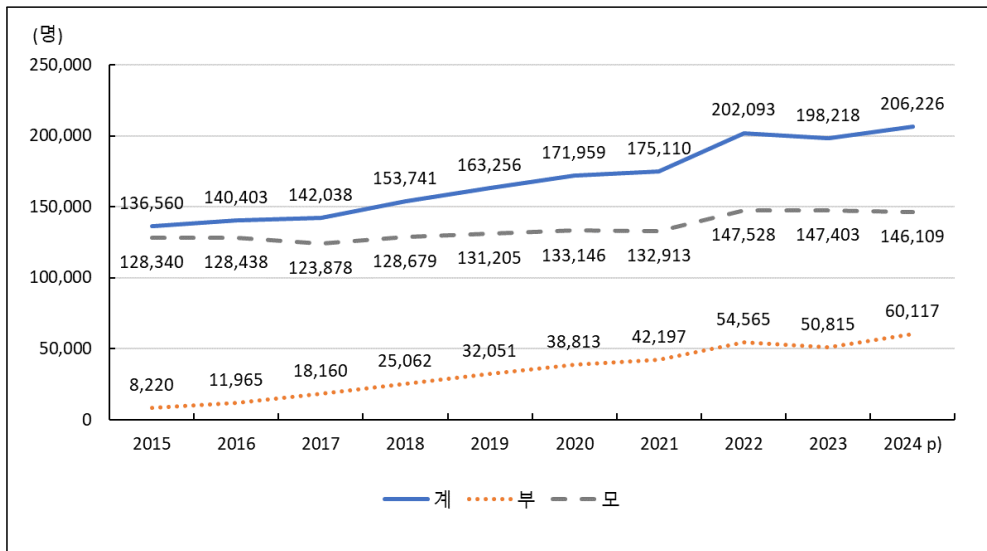
(1) 육아휴직자 수

2015년 대비 2024년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비율에 있어서 여전히 높은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만 6,226명으로 2015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13만 6,560명 대비 51.0% 증가하였다. 2024년 여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70.8%인데, 이는 2015년 여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총 94.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여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성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4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6만 117명)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8,220명) 대비 7.3배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것은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비율에 있어서 여전히 높은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 육아휴직자 수 추이]



주: 1) 육아휴직자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를 의미

2) 2024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2) 한부모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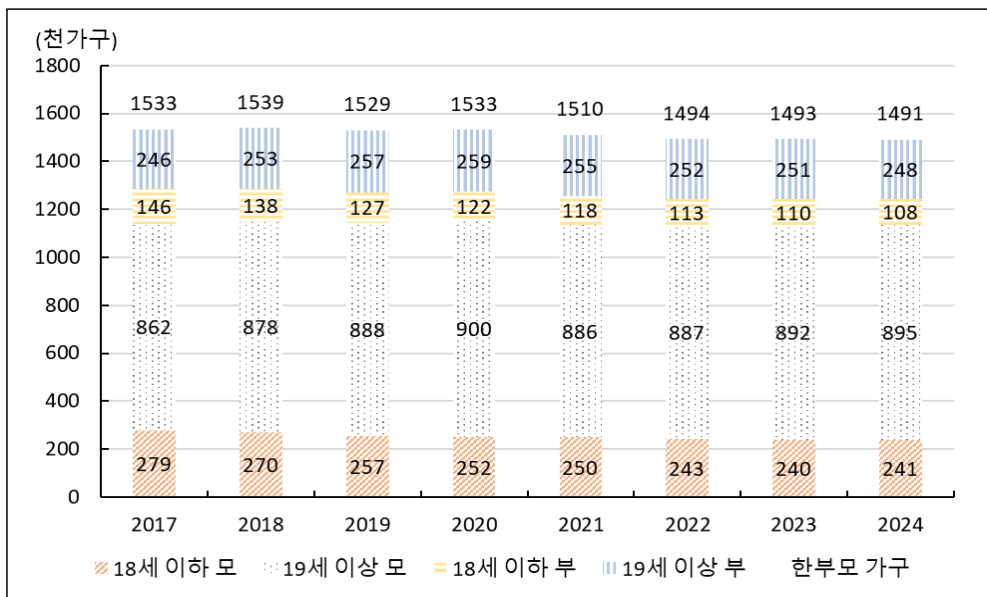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여성 한부모 가구수는 남성 한부모 가구의 3.19배이며, 해당 배율은 2017년 2.91배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한부모¹⁾ 가구수는 2020년 153.3만 가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총 한부모 가구수는 149.1만 가구이다.

2024년 기준 여성 한부모 가구수는 113.5만 가구로 남성 한부모 가구 35.5만 가구의 3.19배인데, 해당 배율은 2017년 2.91배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 전체 한부모 가구 수 중 미성년자(18세 이하)가 한부모인 경우는 2024년에 34.9만 가구였으며, 그 비중은 2017년 27.7%에서 2024년 23.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부가 미성년인 한부모 가구수 대비 모가 미성년인 한부모 가구수 배율은 2017년 1.91배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2.23배에 달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1) 한부모의 개념: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 (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보건 분야로 분류된 것은 5개 기관의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3,11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8.9%이다.

[보건 분야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보건 분야’ 주요 지표 ¹⁾		‘보건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주관적 건강상태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 구축	176,175	98.8	
대표	건강수명	보건복지부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60,803	100.0	
대표	스트레스 인지율*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	22,705	98.9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14,911	100.0	
	흡연 및 음주 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1,050	92.9	
	신체활동 실천율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	9,966	100.0	
	비만 및 저체중 비율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9,285	96.9	
	우울장애 유병률*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763	100.0	
	사망원인별 사망률*	질병관리청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1,986	99.6	
	치매 유병률	외교부	에티오피아(ODA)	951	92.4	
	HIV/AIDS 감염자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700	100.0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	국방부	진료지원	116	100.0	
		등 5개 기관, 12개 사업				
		합 계		311,411	98.9	

주: 1) 국가성평등지수 ‘건강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보건 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는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지표

(1)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장애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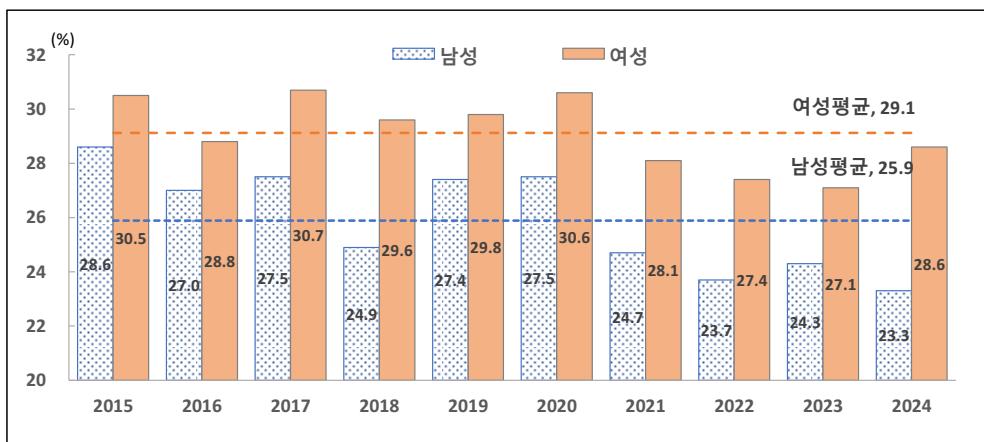
최근 10년 동안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응답 비율을 의미한다. 본인의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신 건강 유지의 근간이 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난다. 2024년에 설문에 응답한 여성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여성의 비율은 28.6%로 남성 비율(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는 경우, 남성의 경우 40~49세 연령대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30~39세 연령대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개년도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에도 여성 인지율이 남성 인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년 평균 여성은 29.1%, 남성은 25.9%의 비율로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에 대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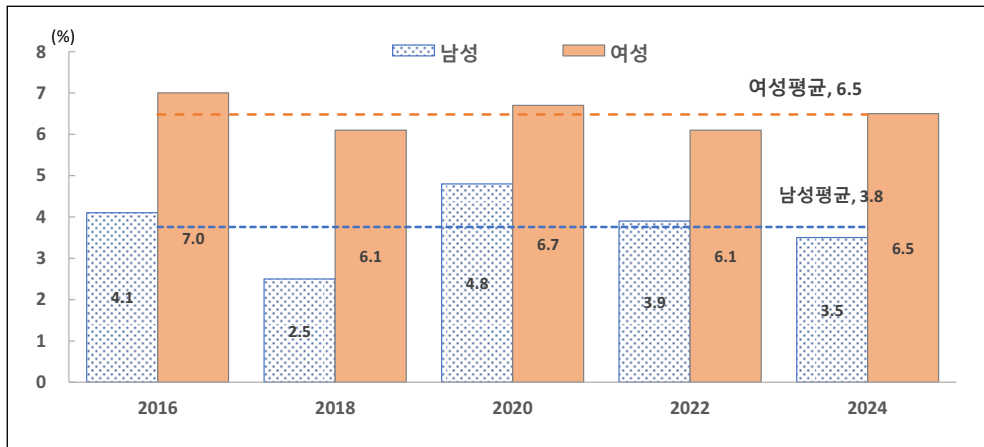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2025

우울장애 유병률 또한 매 2년의 조사 연도마다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우울증 선별도구(PHQ-9)의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사람의 응답 비율을 의미하는데, 2024년 설문에 응답한 여성 중 우울장애 유병률에 해당하는 여성은 6.5%로 남성 비율(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성별 모두 19~29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19~29세 우울증 유병률이 4.8%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19~29세 우울증 유병률이 8.7%로 나타나고 있다. 2016부터 5개 연도의 조사 결과 모두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며, 여성 비율이 평균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장애 유병률]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2025

(2) 사망원인별 사망률

남성과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 1위~4위는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사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사인은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이다.

2024년 기준 사망원인별 사망률 순위를 살펴보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십만명당 174명으로 가장 높았고, 2위는 심장 질환(66명), 3위는 폐렴(59명), 4위는 뇌혈관 질환(48명), 5위는 고의적 자해(자살)(29명) 순이다. 코로나19의 경우 2022년에는 전체 사망원인의 3위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10위로 하락하였다.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2024년)]

(단위: 인구 십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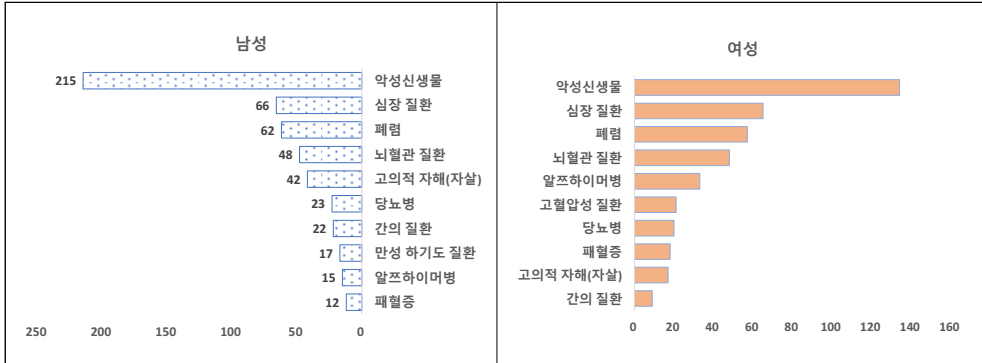
순위(24년)	사망원인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위	악성신생물(암)	151	153	154	154	158	160	161	163	167	174
2위	심장 질환	56	58	60	62	60	63	62	66	65	66
3위	폐렴	29	32	38	45	45	43	44	52	58	59
4위	뇌혈관 질환	48	46	44	45	42	43	44	50	47	48
5위	고의적 자해(자살)	27	26	24	27	27	26	26	25	27	29
(비고)	코로나19								61	1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망원인통계」

성별로 주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 1위~4위는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동일하였다. 남성의 경우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순으로 5~10위를 차지하였다.

여성 사망원인의 5~10위는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고의적 자해(자살), 코로나19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성별 주요 사망원인]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망원인통계」

2024년의 경우 2023년과 비교시 여성의 사망률 순위에서 당뇨병의 순위(6위 → 7위)가 하락하고,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7위 → 6위)는 상승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사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사인은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이다.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안전 분야로 분류된 것은 11개 기관의 31개 세부사업으로 총 2,658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8.3%이다.

[안전 분야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안전 분야' 주요 지표 ¹⁾		'안전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사회 분야별 안전 인식*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피해 및 피해자 지원	42,701	98.9
대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367	99.9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현황	법무부	전자감독	35,878	98.2
	가정폭력 피해/검거현황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 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33,365	100.0
	성매매 범죄 검거/처분현황	성평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21	99.9
	불법촬영 범죄 검거/처분현황 ↔	법무부	보호관찰활동	16,905	98.5
	스토킹 범죄 검거/처분현황	등 11개 기관, 31개 사업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합 계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	265,780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98.3			
	교제폭력 피해현황				

주: 1) 국가성평등지수 '안전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안전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는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지표

성평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 폭력의 심각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하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과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의 성별 수준을 살펴본다.

(1)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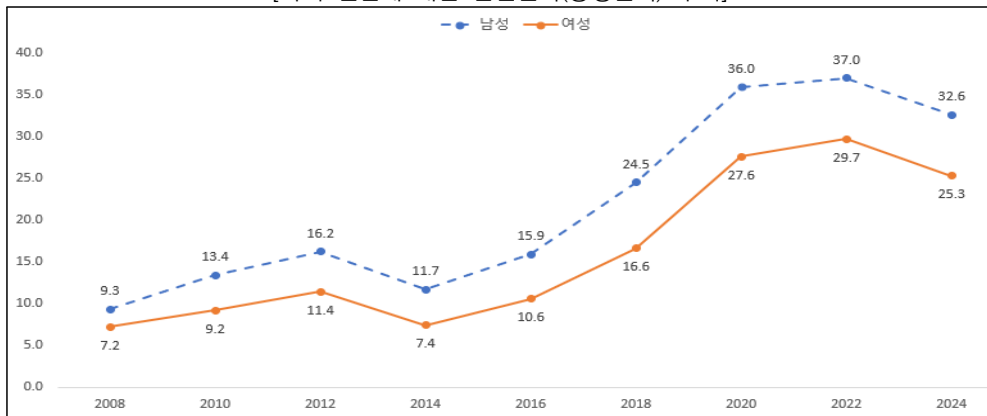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인식은 2014년 이후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다 2024년 소폭 하락하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인식은 2014년 이후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2014년 기준 7.4%에 불과했으나, 2022년 29.7%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의 경우, 2014년에는 여성보다 높은 11.7%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2022년에는 그 비율이 37.0%에 달하였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격차는 최근 6년 간 7%p가 넘었다. 다만 남성과 여성 모두 2024년 조사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32.6%와 25.3%로 하락하였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2024년 조사에서 전반적 안전인식이 하락한 배경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의 영향으로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2022년 대비 13.1%p 급감하였음에도 범죄·경제적 위험·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를 상쇄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범죄는 2022년 3위에서 2024년 불안 요인 1위(17.9%)로 올라섰으며, 경제적 위험과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도 함께 높아졌다.

성별 격차를 주로 형성하는 부문은 범죄로,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남성(28.3%)과 여성(17.7%) 간 10.6%p의 차이를 보였으며, 야간 보행 불안도에서도 여성(44.9%)이 남성(15.8%)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가 안보와 자연재해 부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안전인식을 보여 역방향 격차도 존재한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인식(긍정인식) 추이]



주: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는 '매우 안전'부터 '매우 안전하지 않음'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며, 긍정 인식 비중은 '비교적 안전' 및 '매우 안전'이라고 답한 비중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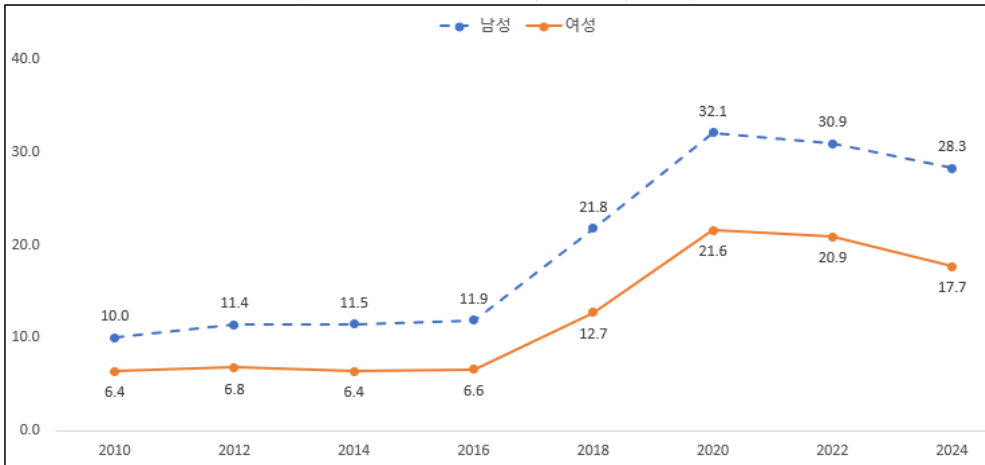
(2)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은 2016년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녀 모두 2020년대 이후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별 격차는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2024년 기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의 비율은 17.7%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중 범죄 관련 안전 인식만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은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2016년 기준 11.9%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2020년에는 그 비율이 32.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2016년 기준으로 6.6%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성과 유사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17.7%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성별 격차는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큰 편이며, 최근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긍정인식) 추이]



주: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는 '매우 안전'부터 '매우 안전하지 않음'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며, 긍정인식 비중은 '비교적 안전' 및 '매우 안전'이라고 답한 비중을 합산한 것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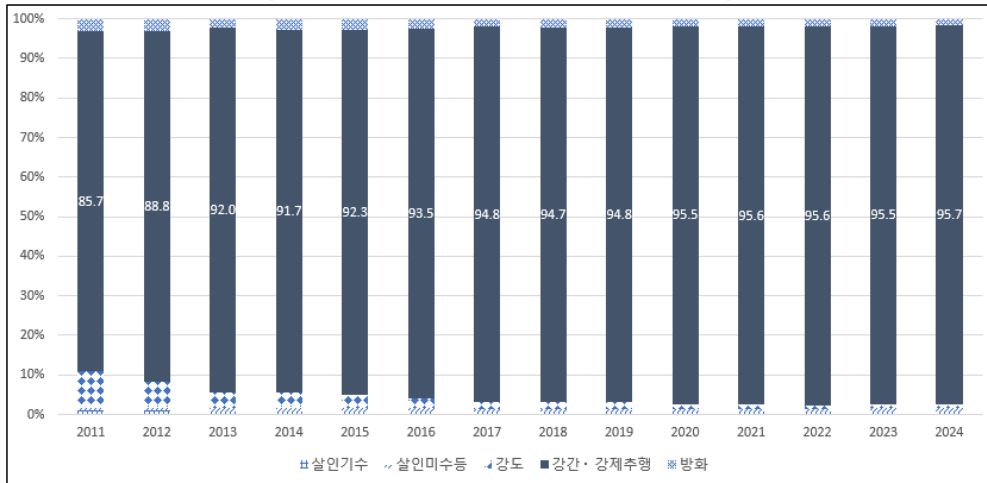
(3) 강력범죄 유형별 여성 피해자 비율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95.7%로,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10명 중 약 9.6명이 성범죄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5.7%에서 2024년 9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10명 중 약 9.6명이 성범죄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살인·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 유형의 여성 피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강간·강제추행 자체의 절대적 피해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 피해의 여성 집중 현상이 성범죄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인·살인미수·강도·방화 등 나머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합산 14.3%에서 2024년 4.3%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구성 변화는 강력범죄 전반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는 양상이 성범죄로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2024년 사회조사에서 여성의 범죄 불안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중 유형별 비중 추이]



주: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전체 중 각 유형별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문화·정보 분야로 분류된 것은 5개 기관의 16개 세부사업으로 총 76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2.8%이다.

[문화·정보 분야 주요 지표 및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문화·정보 분야 주요 지표 ¹⁾		'문화·정보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여가시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47,001	100.0	
		문화체육관광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10,325	73.3	
대표	성별 체육활동 참여율*	성평등가족부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3,839	97.4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3,319	99.4	
대표	성별 정보화 격차	새만금개발청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224	100.0	
↔	성별 고령층 정보화 수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200	100.0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717	93.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329	97.6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110	92.0	
	성별 여가시간	성평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679	28.2	
		성평등가족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606	98.9	
	온라인 미디어 이용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문화 확산	514	88.9	
		인사혁신처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59	99.6	
	다문화 수용성 지수	성평등가족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247	100.0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0	100.0	
	인터넷 이용여부 활용시간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문화 확산	91	97.8	
	인터넷 बैं킹 이용률	등 5개 기관, 16개 사업				
	합 계				76,600	92.8

주: 1) 국가성평등지수 '문화·정보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문화 및 정보 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 및 사업은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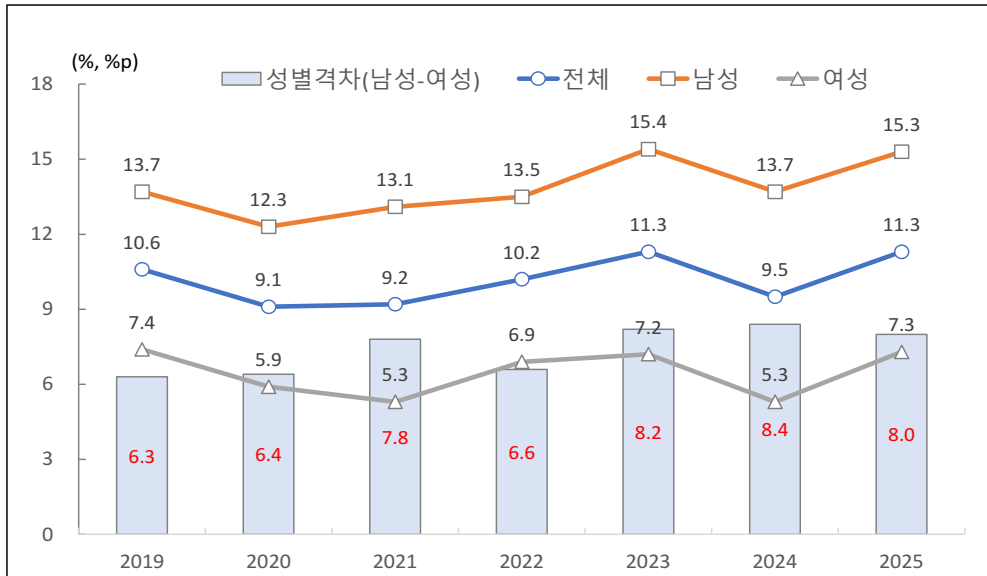
문화·정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대표 지표인 체육활동 참여율과 성별 고령층 정보화 수준 추이를 분석한다.

(1) 체육활동 참여율

2025년 체육활동 참여율은 양성 모두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성별 격차 또한 소폭 완화된 모습이다.

10세 이상 인구 중 체육동호회에 가입하여 현재 활동 중인 인구 비율로 살펴본 체육활동 참여율은 2025년 11.3%로 2024년 9.5%에 비해 1.8%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24년 13.7%에서 2025년 15.3%, 여성은 동기간 5.3%에서 7.3%로 각각 상승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도 격차는 2024년 8.4%p에서 2025년 8.0%p로 소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이후 남녀의 체육활동 참여도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체육동호회 활동 참여율 추이]



주: 10세 이상 인구 중 체육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인구 비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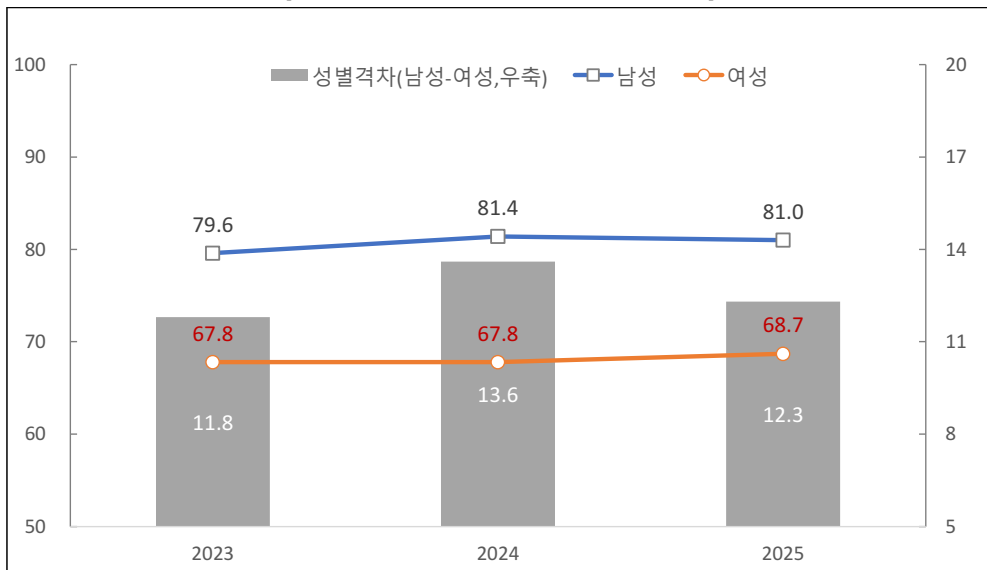
(2) 노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5년 노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성별 격차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노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관한 지표는 50세이상 노령층(장노년층)을 대상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역량, 활용 관련 30개 항목을 조사하여 지수화하고 이를 일반국민 수준(100) 대비 백분율로 점수화한 지수이다.

최근 3개년 동안 노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성별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5년 노령층 디지털 정보 수준은 71.8로 2024년(71.4)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25년 81.0로 전년(81.4)에 비해 0.4p 하락했지만, 여성은 68.7로 전년(67.8)에 비해 0.9%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 격차는 12.3p로 전년(13.6p)에 비해 축소되었다.

[성별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가. 분야별 주요지표 및 대상사업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중 의사결정 분야로 분류된 것은 6개 기관의 8개 세부사업으로 총 25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4.9%이다.

[의사결정 분야 주요 지표 및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

‘의사결정 분야’ 주요 지표 ¹⁾		‘의사결정 분야’ 성인지 대상사업(‘25회계연도’) ²⁾			
구분	지표명	기관	사업명(세부사업)	집행액	집행률
대표	여성 국회의원 비율*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591	100.0
대표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기획재정부	국민참여 예산 제도 운영	577	97.5
대표	관리직 비율	성평등가족부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550	90.8
대표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362	94.0
	유권자수 및 투표율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 전략기반구축	286	89.9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국방부	PKO파병	90	100.0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55	87.3
	법조인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운영	8	100.0
	언론종사자 현황	등 6개 기관, 8개 사업			
	기부비율	합 계		2,519	94.9
	자원봉사자 참여율				
	사회계층 의식				

주: 1) 국가성평등지수 ‘의사결정 분야’ 및 성인지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정치 및 사회참여 분야’ 지표

2) 대상사업은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임

3) 분석대상 지표는 (*) 표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지표

(1)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과거 20여년간 지역구 선거의 경우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처음 여성이 당선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여성의 공직 선거 입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 입후보자 수는 2004년 5.6%에서 2024년 14.0%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 당선자 수 역시 같은 기간 2.1%에서 14.2%까지 12.0%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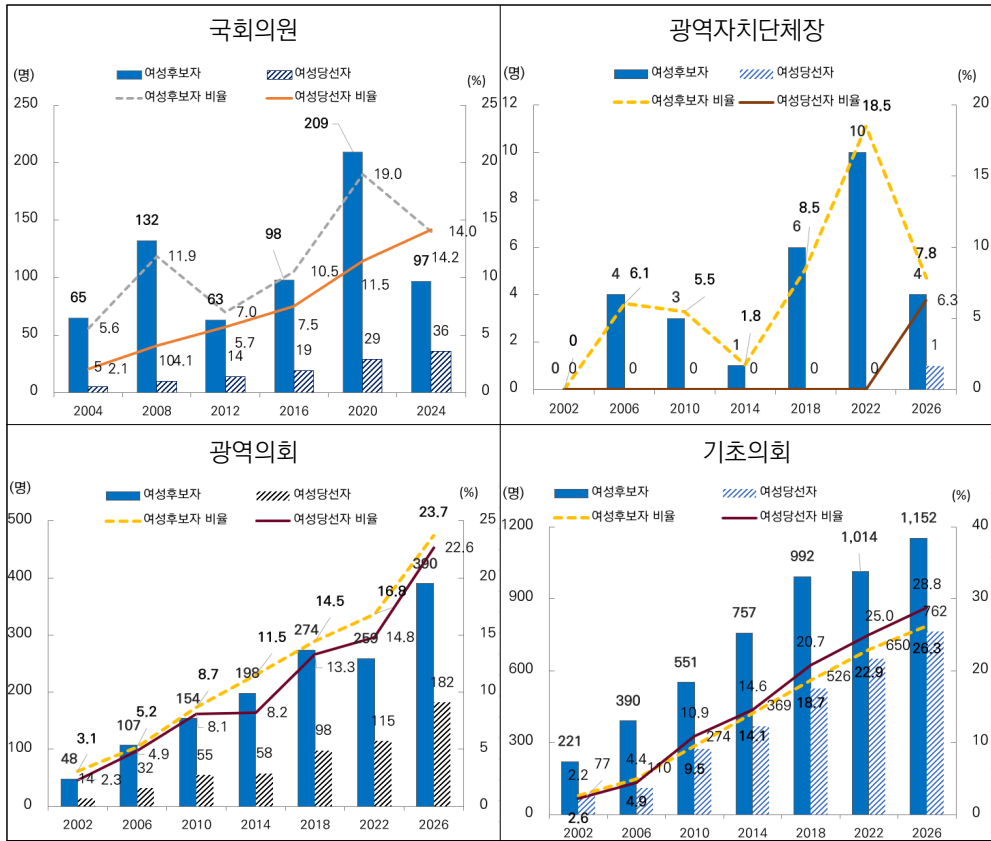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성 입후보자의 수는 2002년 0%에서 2022년에는 18.5%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였다. 특히 2026년에는 처음으로 여성이 당선되면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그간 0%에서 6.3%로 증가했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여성후보자 수 및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리고 여성당선자의 비율도 2002년 2.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6년 22.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의 경우에도 광역의회의원과 비슷하게 여성 입후보자의 비율은 2002년 2.6%에서 2026년 26.3%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여성당선자의 비율은 2026년 28.8%로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4개 유형의 지역구 선거 공직자의 여성 비율은 전반적으로 입후보자 수 및 당선자 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최초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 부문에서도 여성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지역구 선거별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 추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여성 관리직¹⁾ 공무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²⁾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계자료로는 '관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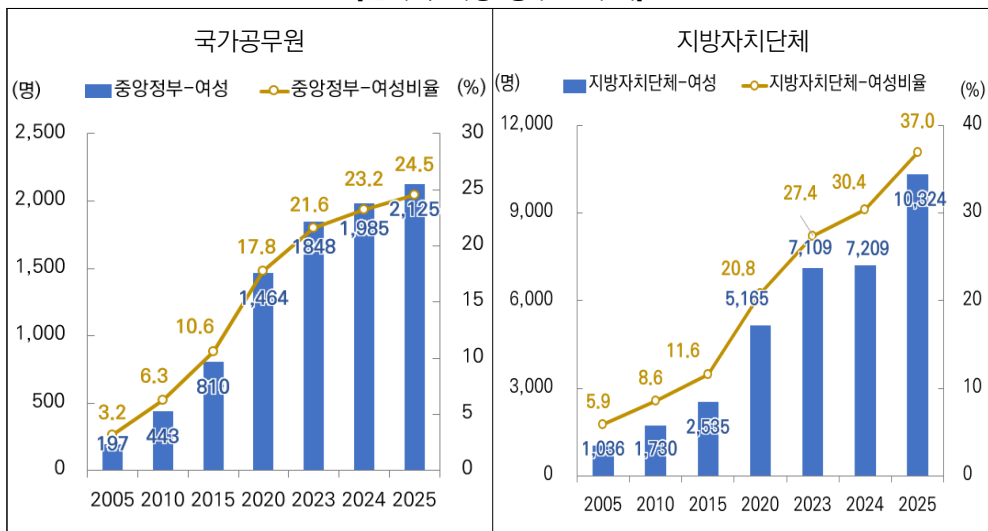
1) 관리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연구·지도·우정직·전문직·외무·별정·일반임기제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2) 이를 위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관리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연도별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 중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2005년 3.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24.5%로 20여년간 약 21.3%p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공무원 여성 관리직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2005년 5.9%에서 2025년 37.0%로 31.1%p 증가했다.

[관리직 여성 공무원 추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3장

주요 부처별 분석

1 부처별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의 대상 사업은 총 35개 부처의 266개 세부사업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고용노동부 33개, 성평등가족부 33개, 문화체육관광부 25개, 보건복지부 25개, 중소벤처기업부 23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인지 예산의 집행규모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행액이 9조 4,916억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35.7%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가 31.2%인 8조 2,999억원, 보건복지부가 20%인 5조 3,138억원을 집행하였다.

[부처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대상 사업 ¹⁾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액 구성비율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국회	1	210	182	0.0	0	28	86.7
대법원	1	7,500	7,500	0.0	0	0	100.0
기획재정부	1	592	577	0.0	0	15	100.0
교육부	10	259,720	251,445	0.9	55	8,221	9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303,104	303,065	1.1	0	38	99.9
외교부	6	125,805	123,021	0.5	0	2,784	97.8
통일부	6	46,830	45,175	0.2	0	1,655	96.5
법무부	9	140,623	138,260	0.5	0	2,362	98.3
국방부	6	87,045	82,162	0.3	1,195	3,688	94.4
행정안전부	4	3,324	3,260	0.0	0	64	98.1
문화체육관광부	25	384,749	380,134	1.4	0	4,615	98.8
농림축산식품부	11	313,846	307,528	1.2	249	6,069	98
산업통상부	6	9,583	9,583	0.0	0	0	100.0
보건복지부	25	5,318,932	5,313,834	20.0	70	5,028	99.9
환경부	3	14,710	14,034	0.1	84	592	95.4
고용노동부	33	8,469,642	8,299,871	31.2	75	169,696	98
성평등가족부	33	1,511,292	1,505,076	5.7	163	6,053	99.6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대상 사업 ¹⁾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액 구성비율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국도교통부	3	225,335	212,380	0.8	18	12,937	94.2
해양수산부	11	23,965	22,871	0.1	0	1,094	95.4
중소벤처기업부	23	9,527,766	9,491,572	35.7	0	36,194	99.6
인사혁신처	2	4,190	4,119	0.0	0	71	98.3
법제처	1	1,362	1,329	0.0	0	33	97.6
국가인권위원회	2	173	160	0.0	0	13	92.5
국민권익위원회	1	8	8	0.0	0	0	100.0
국세청	1	432	432	0.0	0	0	100.0
경찰청 ²⁾	6	40,444	39,502	0.1	289	653	97.7
소방청	2	1,139	1,098	0.0	0	41	96.4
국가유산청	1	1,520	1,520	0.0	0	0	100.0
농촌진흥청	4	11,575	11,483	0.0	0	92	99.2
산림청	2	7,385	7,066	0.0	0	319	95.7
지식재산청	5	19,630	19,629	0.1	0	1	100.0
질병관리청	1	1,994	1,986	0.0	0	8	9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345	1,281	0.0	0	64	95.2
새만금개발청	1	3,224	3,224	0.0	0	0	100.0
해양경찰청	1	2,854	2,820	0.0	0	34	98.8
합계	266	26,872,038	26,607,378	100	2,198	262,462	99.0

주: 1. 세부사업 기준

주: 2. 경찰청의 경우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 결산 현황과 실제 예산현액 및 집행액 간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부처별 분석 14. 경찰청'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부처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의 부처별 성과지표를 보면, 성평등가족부의 성과지표가 46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45개, 문화체육관광부 31개, 보건복지부 30개, 중소벤처기업부 28개 등의 순이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국회, 대법원 등 15개 기관이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여 100%의 달성률을 보였고, 성과지표가 20개 이상인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5.2%의 달성률(21개 성과지표 중 20개 달성), 성평등가족부가 87%의 달성률(46개 성과지표 중 40개 달성), 중소벤처기업부가 82.1%의 달성률(28개 성과지표 중 23개 달성), 문화체육관광부가 80.6%의 달성률(31개 성과지표 중 25개 달성)을 보였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개의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여 0%의 달성률을 보였고, 산림청은 2개 중 1개 지표만을 달성하여 50%, 외교부, 통일부는 6개 중 4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66.7%의 달성률을 보였다.

[부처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구분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국회	1	1	0	100.0
대법원	1	1	0	100.0
기획재정부	1	0	1	0
교육부	11	8	3	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20	1	95.2
외교부	6	4	2	66.7
통일부	6	4	2	66.7
법무부	12	12	0	100.0
국방부	11	7	4	63.6
행정안전부	4	3	1	75
문화체육관광부	31	25	6	80.6
농림축산식품부	11	10	1	90.9

(단위: 개, %)

구분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산업통상자원부	7	6	1	85.7
보건복지부	30	21	9	70
기후에너지환경부	10	9	1	90
고용노동부	45	31	14	68.9
성평등가족부	46	40	6	87
국토교통부	3	2	1	66.7
해양수산부	13	9	4	69.2
중소벤처기업부	28	23	5	82.1
인사혁신처	2	2	0	100.0
법제처	1	1	0	100.0
국가인권위원회	2	2	0	100.0
국민권익위원회	1	1	0	100.0
국세청	1	1	0	100.0
경찰청	13	12	1	92.3
소방청	2	2	0	100.0
국가유산청	1	1	0	100.0
농촌진흥청	5	5	0	100.0
산림청	2	1	1	50
지식재산청 (특허청)	6	6	0	100.0
질병관리청	2	2	0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0	1	0
새만금개발청	1	1	0	100.0
해양경찰청	1	1	0	100.0
합계	339	274	65	80.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성인지 결산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은 2개 부처에 대하여 5건이었다. 부처별로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경우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예산·수혜자 입력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과 보고체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과 성과 부진 부처의 성과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미달성 사업 환류 체계 구축 및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의 교육자료 제작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상황]

구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5.12.)
기획재정부 (현 재정경제부)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교육운영’ 예산의 성인지 결산서 상 예산 2억 9,200만원 전액이 여성 사업대상자 12,568명에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오류 발생	제도 개선	조치 완료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의 성인지 결산서 상의 기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체계 상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것		
성평등 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률(73.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9%)보다 낮으며, 2년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19개(3년 이상 6개, 2년 이상 13개)에 달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평균 달성률(79.9%)에 미치지 못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성평등가족부는 글로벌	제도 개선	조치중

구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5.12.)
	<p>여성리더 포럼 등 일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음</p> <p>[시정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부처가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성평등 가족부	<p>[지적사항]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관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과제 중 이행기간이 도과된 미완료 과제의 수와 성평등가족부의 개선권고를 불수용한 과제의 수가 누적되고 있음</p> <p>※ 미완료과제 : 2020년 13건, 2021년 10건, 2022년 13건 불수용과제 : 22건(2020년~2022년)</p> <p>[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관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불수용 사유들을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p>	제도 개선	조치 완료
성평등 가족부	<p>[지적사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집합교육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자료 제작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음</p> <p>[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교육자료가 제작되지 않도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p>	제도 개선	조치 완료
성평등 가족부	<p>[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킹·교제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인 '스톡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스톡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집행은 부진하여 2024년 스톡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5%로 저조함 - 긴급주거지원(최대 30일)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3개월 이내, 1회 	제도 개선	조치 완료

구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5.12.)
	<p>연장 가능)보다 장기적인 주거지원 사업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사업(최대 6년)의 근거 규정인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는 규정 되어 있지 않음</p> <p>[시정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각 시도별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장기적인 주거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6.

‘조치완료’로 보고한 부처의 조치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교육운영’ 사업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2025년부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성평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에 이행 완료율이 낮은 것은 법령 개정 및 지침 반영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개선권고 과제 점검 및 이행 촉구를 지속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을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교육자료가 제작되지 않도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정례회의를 통해 철저히 사업관리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긴급주거지원 기관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 긴급주거지원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조치중’으로 보고한 부처의 조치현황을 보면, **성평등가족부**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 달성률 제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점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성과관리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대법원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개 세부사업에 7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00.0%로 성인지 예산현액 75억원 중 75억원을 집행하였다.

[대법원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7,500	7,500	100.0
일반회계 소계(1개 사업)		7,500	7,500	100.0
합계		7,500	7,500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대법원은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1개(100.0%)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대법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	1	-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대법원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지원	법원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점)	95.5	97.7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1-2. 분석 의견

가.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대법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실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법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해 법원 구성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5억원으로 집행률은 100.0%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법원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점)'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목표치 95.5점 대비 실적치 97.7점을 기록하여 달성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실적치가 96.9점, 96.8점, 97.7점으로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목표치는 85.7점, 86.7점, 95.5점으로 설정되어 실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달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은바, 최근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사항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법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최근 3년간 실적치(96.9→96.8→97.7점)가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실적 추이를 반영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2-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집행액은 5.77억원이며 집행률은 97.5%이다.

[기획재정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92	577	97.5
일반회계 소계(1개 사업)		592	577	97.5
합계		592	577	97.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기획재정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해 총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미달성하였다.

[기획재정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	0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기획재정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예산국민참여단 여성참여비율(%)	50	49.1	미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2-2. 분석 의견¹⁾

가. 성인지 대상사업 여부 검토 필요

기획예산처의 ‘복권사업비’ 사업 중 내역사업인 ‘판매수수료’는 복권 판매사업자에게 복권 판매 금액의 고정 요율(온라인 복권 5%, 인쇄복권 10%)로 지급된다. 온라인 복권 판매사업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발된다. 다만, 이를 통해 선발자들이 경제적 편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는 해당 사업의 성인지 대상사업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의 ‘복권판매사업’은 로또(온라인복권), 연금복권, 스피또(인쇄복권) 등 12종의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다. 2025년 복권판매금액은 7조 6,582억원이고 수익금은 3조 1,061억원이다.²⁾ 복권 수익의 65%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지원, 취약 여성 및 노인 복지 등에 활용된다. 복권 수익의 35%는 과거 복권법이 제정되기 전 개별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던 10개 법정 기관 및 기금에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재원으로 사용된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은 4조 6,394억원으로, 집행률은 약 100%이다. 집행액 중 당첨금이 4조 658억원, 판매수수료가 4,581억원, 위탁수수료가 836억원, 발행경비는 319억원이다.

판매수수료는 복권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을 통해 복권 판매사업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사업자는 약 9,500명, 인쇄복권 판매사업자는 약 15,000명³⁾이다. 판매수수료는 복권 판매 금액의 고정 요율(온라인 복권 5%, 인쇄복권 10%)로 산정된다. 온라인 복권의 판매액이 2025년 5조 9,471억원이

1)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정부조직개편 이전의 부처 체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작성되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기존 성인지 대상사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결산서상 부처 구분과의 일관성을 위해 이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획예산처 소관이 된 사업에 관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의견도 분석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 절에 함께 수록하였다.

2)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내년도 복권 판매는 8.4조원 전망, 공익사업에 3.4조원 지원 계획,” 기획예산처, 2026.4.28.

3) 복권은 온라인과 인쇄 복권으로 구분되며, 복권 판매자는 두 종류의 복권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

있으므로 온라인 복권 판매사업자 1인당 판매수수료는 약 3,130만원에 해당된다. 온라인 복권 판매사업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발되고 있다.⁴⁾ 비록 온라인 복권의 판매사업자가 시군구별로 전산 추천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선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담당 부처는 해당 사업의 성인지사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여부 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여부 검토 필요 사유
복권사업비 (판매수수료)	복권 판매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복권 판매 금액의 고정 요율(온라인 복권 5%, 인쇄복권 10%)로 지급	동 사업의 온라인 복권 판매사업자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발되고 있으나 경제적 편익을 받고 있으므로 성인지사업 대상여부를 검토할 필요

4) 이에 반해 인쇄복권 판매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복권 유통 도매 대리점에 판매점 등록 신청을 통해 판매사업자 자격을 획득한다.

3-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교육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0개 세부사업에 2,597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개 세부사업 1,918억원,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3개 세부사업 11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267억원, 사학진흥기금 1개 세부사업 297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6.8%로 성인지 예산현액 2,597억원 중 2,514억원을 집행하였다. 내역사업별로는 총 11개 사업 중 '시간제보육 지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저출생·지역소멸 등 영유아 수 감소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확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교육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시간제보육 지원	28,018	28,018	100.0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1,308	1,308	100.0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어린이집 평가 운영	8,158	8,158	100.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사업	62,948	62,948	100.0
	-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62,848	62,848	100.0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8,561	28,479	99.7
일반회계 소개(5개 세부사업, 6개 내역사업)		191,840	191,753	100.0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285	285	100.0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평가 및 지원	84	76	90.9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090	11,010	99.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어린이집 확충	26,684	18,583	69.6
특별회계 소계(4개 사업)		38,143	29,954	78.5
사학진흥 기금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용자)	29,737	29,737	100.0
기금 소계(1개 사업)		29,737	29,737	100.0
합계		259,720	251,445	96.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교육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해 총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8개(72.7%)의 목표를 달성하고 3개는 미달성하였다.

[교육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1	8	3	72.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교육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연간 이용아동 비율(%)	10.3	14.5	달성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보수교육 이수자의 교육 이수 역량(점수)(점)	92.2	93.5	달성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 어린이집 평가 운영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비율(%)	94.6	-	미달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그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사업	그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 수(명)	23,220	21,053	미달성
-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대체교사 지원율(%)	70	67.3	미달성
평생교육바우처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등록 사용 기관 수 (누적)(개)	3,438	3,549	달성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 담당자 성장 훈련 만족도(%)	80	94.7	달성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평가 및 지원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	21.4	22.2	달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성별 선발 비율 (비율)	1	1	달성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32.5	33.7	달성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 기금)(용자)	행복기숙사 남학생 및 여학생 입사생 만족도 차이(점)	0.6	0.32	달성

주: 2024년 7월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으로 기존 등급제가 폐지되어 성과(A,B 등급 비율) 측정이 불가함. 이에 2026년 성과지표는 '어린이집 평가 개소수'로 변경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3-2. 분석 의견

가.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고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평생교육바우처 등록 사용 기관 수(누적)’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 목적인 저소득층 성인 및 장애인의 자기계발·자아실현 지원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성별 수혜 현황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워 성인지 예산사업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에 근거하여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 및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86억원으로 집행률은 99.7%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평생교육바우처 등록 사용 기관 수(누적)’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목표치 3,438개에 대해 실적치 3,549개를 기록하여 달성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사용 기관 수의 증가가 수혜자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나 자기계발·자아실현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동 사업은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임에도 성별 수혜 현황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부재하여, 성인지 예산사업으로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수혜자의 자격증 취득·취업 등 자기계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성별 수혜자 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조지표로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수혜 분석]

		2024년	2025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전체	51,630	85,833
	여성(비율)	35,594 (68.9)	60,849 (70.9)
	남성(비율)	16,036 (31.1)	24,984 (29.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필요 사항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성인 및 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자기계발·자아실현 지원	'등록 사용 기관 수(누적)'는 수혜자의 실질적 역량 제고 및 성별 수혜 현황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자기계발 성과 관련 지표 또는 성별 수혜 현황을 반영한 보조지표 병기 검토 필요

나.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성과지표는 '성별 선발 비율'로 설정되어 있으나, 지원자 대비 선발률의 성별 균형만을 측정하는 구조상 성별 수혜 규모의 실질적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혜 불균형의 원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대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1억원이며 집행률은 99.3%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성별 선발 비율'로, 여성지원자 중 여성수혜자 비율을 남성지원자 중 남성수혜자 비율로 나눈 값으로 산정된다. 2025회계연도 실적치는 1.00으로 목표치(1.00) 대비 달성으로 판정되었으며, 2023~2025년 기간 동안 동 지표값은 지속적으로 1에 근접하여 성별에 따른 지원자 대비 선발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성별 수혜 규모의 실질적 격차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표값이 1에 수렴하더라도 여성 지원자가 남성 지원자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여성 수혜자의 절대적 규모 역시 그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성별 수혜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여성 지원자(2,523명)는 남성 지원자(835명)의 약 3배에 달하며, 수혜자 또한 여성(1,068명, 74.9%)이 남성(357명, 25.1%)을 크게 상회한다. 이처럼 지표 달성이 반드시 성평등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별 지원자 격차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수혜 규모의 성별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필요 사항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대상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성별 선발 비율'은 지원자 대비 선발률의 성별 균형만을 측정하여 성별 수혜 규모의 실질적 격 차를 반영하지 못하므로(2024년 기준 여성 수 혜자 74.9%, 남성 25.1%), 성별 지원자 격차 원인 분석 및 수혜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로의 개선 필요

다.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교육부의 '어린이집 평가 운영' 사업의 성과지표인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비율(%)'은 2024년 7월 평가제도 개편으로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026년부터 '어린이집 평가 개소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것을 예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라는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양적 투입 지표에 불과하므로, 개편된 서술형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2억원으로 집행률은 100%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비율(%)'로, 2023~2024회계연도에는 각각 96.4%, 97.0%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2025회계연도에는 2024년 7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평가제도 개편으로 기존 등급제가 폐지되어 실적치 산출이 불가능하여 미달성으로 판정되었다. 개편된 평가제도는 기존의 A·B·C·D 등급 부여 방식에서 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서 제공 방식으로 전환되어, 단일 수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교

육부는 2026년부터 성과지표를 ‘어린이집 평가 개소수’로 변경할 예정이나, 이는 평가의 양적 실적만을 측정하는 투입 지표에 불과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라는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서술형 평가결과를 활용한 개선 비율, 보육환경 관련 항목의 충족률 등 개편된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필요 사항
어린이집 평가 운영	전체 어린이집 주기적 평가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기존 ‘평가 A·B등급 비율’ 지표는 등급제 폐지로 측정 불가하며, 대체 지표로 예고된 ‘평가 개소수’는 양적 투입 지표에 불과하므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활용한 개선 비율 등 보육서비스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 필요

4-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8개 세부사업에 3,031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개 세부사업 2,117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314억원, 국립중앙과학관 1개 세부사업 1억원, 원자력기금 1개 세부사업 19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3개 세부사업 17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5개 세부사업 141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3개 세부사업 259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00.0%로 성인지 예산 3,031억원 중 3,03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사업별로는 1개의 내역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역사업들은 모두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 중견연구(최초신규)(R&D)	203,070	203,070	100.0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 센터 운영	372	372	100.0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R&D)			
-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육성	8,300	8,300	100.0	
일반회계 소계(3개 사업)		211,742	211,742	100.0
소재부품 장비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R&D)			
	- 나노소재분야전문인력양성(R&D)	640	640	100.0
지역균형 발전특별	지역디지털인재양성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회계	-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31,382	31,382	100.0
국립중앙 과학관	과학교육(손익계정)			
	- 과학관전문인력양성사업	131	92	70.1
특별회계 소계(3개 사업)		32,153	32,114	99.9
원자력 기금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1,906	1,906	100.0
정보통신 진흥기금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2,451	2,451	100.0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 이노베이션아카데미운영	10,059	10,059	100.0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4,800	4,800	100.0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산업 기반조성	5,150	5,150	100.0
	ICT 창의기업 육성			
	-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070	1,070	100.0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1,878	1,878	100.0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 클라우드개발자기술교육	1,058	1,058	100.0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정보화)			
	- 디지털윤리 교육	4,963	4,963	100.0
과학기술 진흥기금	포용성장전문연구 인력양성(R&D)	1,450	1,450	100.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19,684	19,684	100.0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4,740	4,740	100.0
기금 소계(12개 사업)		59,209	59,209	100.0
합계		303,104	303,065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2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20개(95.2%)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21	20	1	9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 중견연구(최초신규)(R&D)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여성 과학자 선정 연구비 비율(%)	23.0	26.4	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R&D) -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 센터 운영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여학생 수혜자 수(명)	17.3	19.0	달성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R&D) -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육성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여성 수료생 비율(%)	17.1	18.5	달성
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R&D) - 나노소재분야전문인력양성 (R&D)	나노소재분야전문인력양성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인력양성) 여성 수료생 비율(%)	33.3	37.9	달성
지역디지털인재양성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여성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89.6	93.1	달성
과학교육(손익계정) - 과학관전문인력양성사업	여성수혜비율(%)	72.0	78.0	미달성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조사대상반영률 성비(%)	100.0	100.0	달성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여성대학생 참여율(%)	30.0	44.1	달성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운영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여성 교육생 참여율(비율(%))	21.3	32.0	달성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차세대보안리더 여성 교육생 비율(%)	24.0	39.0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방송콘텐츠 진흥 -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	성별 만족도 차이(%p)	5.0	2.4	달성
ICT 창의기업 육성 -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전담멘티 프로그램 여성 참여 확대(%)	25.7	32.0	달성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IT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 (개사)	6	6	달성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 클라우드개발자기술교육	클라우드 전문 여성인력 수혜율 (%)	15.0	31.7	달성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정보화) - 디지털윤리 교육	디지털윤리교육 만족도(%)	91.6	91.7	달성
	디지털윤리의식 개선도(%)	12.1	12.9	달성
포용성장전문연구 인력양성 (R&D)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명)	100	177	달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여학생 이공계 분야 진출 성과(%)	50.3	70.0	달성
	경력복귀 성공률(%)	67.9	72.0	달성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종합 만족도(점)	80.0	90.4	달성
	여학생 지역격차 해소 성과(%)	22.0	40.3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4-2. 분석 의견

가. 성과지표 부적절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사업의 성과지표인 ‘성별 만족도 차이’는 인력 육성에 대한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인력 지원 및 육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사업은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직업·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창업 및 사업화를 원화는 전업 크리에이터가 성별 구분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성별 만족도 차이’로 설정하였는데, 2025년 실적치는 2.4%p로 목표치인 5%p 대비 양호하여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요인 외에도 지원 규모, 참여자의 기대 수준, 산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성평등 목표의 성과지표로써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사업은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작자 지원성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 지원 및 육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방송콘텐츠 진흥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조성)	성별 만족도 차이 (%p)	5	2.4	현재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워 여성인력 지원 및 육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필요

나. 성과지표 부적절

‘포용성장전문연구인력양성(R&D)’ 사업은 성별 및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참여자를 선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로 설정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사업수혜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포용성장전문연구인력양성(R&D)’ 사업은 우수 장애 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속 가능 고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연구기관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공계 장애대학(원)생을 정책대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이공계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학생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지원함으로써 우수 과학기술인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 목표치 100명 대비 실적치 177명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다. 2025년 수혜자 177명 중 여성은 63명으로 35.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 27.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학생의 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인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만으로 여성 장애학생의 참여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고 있는지,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이 성별로 균형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전체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성별 수혜 구조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성과지표를 달성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만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와 같은 총량 지표에 한정하기보다, ‘전체 참여자 중 여성 학생 참여율’, ‘성별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 등으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포용성장전문 연구인력양성(R&D)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명)	100	177	총 참여 학생 수만으로는 성별 수혜 균형성 및 여성 학생 참여 확대 효과 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

5-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총 4개 세부사업에 3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8.1%로 성인지 예산현액 33.2억원 중 32.6억원을 집행하였다. 내역사업별로도 모든 사업에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및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사업은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은 93.7%,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사업은 9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546	546	100.0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613	574	93.7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890	1,889	100.0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75	250	91.0
일반회계 소계(4개 사업)		3,324	3,260	98.1
합계		3,324	3,260	98.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행정안전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3개(75.0%)의 목표를 달성하고 1개는 미달성하였다.

[행정안전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4	3	1	75.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행정안전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교육수료율(%)	96	99	달성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사업 관련 여성 참가율(%)	77	80	달성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재난관리 전문인력(여성) 수료율(%)	90	96.4	달성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사회재난교육 여성참여율(%)	24	23.6	미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5-2. 분석 의견

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성평등적 효과에 기인한 결과라기보다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동 사업이 우리 사회의 성차별 개선이나 성평등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 유대 강화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동 사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경제활동과 정착 지원을 통해 성차별 개선에 기여하고자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 관련 여성 참가율(%)’을 설정하고, 여성 참가율 목표치를 80%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자 34만 7,352명 중 여성은 24만 7,783명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참가율 목표를 80%로 설정하는 것은 사업 수혜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성차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향후 개선방안으로 “향후 교육 시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이 20%에 불과한 현행 실적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정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은 성평등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서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제외 필요 사유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동 사업은 성별 격차 해소나 성평등 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여성 참여 비율 역시 사업 대상자의 성별 구성에 따른 결과이므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나. 성과지표 미달성으로 사업관리 강화 필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사업은 과거보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하향 설정했음에도 실적치가 미달하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사회재난교육 참여율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성과와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사업은 사회재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사회재난 교육에 대한 여성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회재난교육 여성참여율(%)’을 설정하고 여성참여율 목표치를 24%로 제시하였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목표치인 25%에 비해 1%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러한 목표치 하향 조정은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중이 2024년 26.4%에서 2025년 23.6%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재난 업무의 특성상 남성 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재난 분야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가 지속되거나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향후 개선사항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개선방향은 성별에 관계없는 참여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재난 업무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성 참여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전체 참여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재난 업무가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의 영역이라는 기존 인식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은 사회재난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신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지표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사회재난교육(%)	24	23.6	성과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25개 세부사업에 3,847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1개 세부사업 1,773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34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8개 세부사업 1,591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개 세부사업 92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개 세부사업 283억원, 영화발전기금 1개 세부사업 75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8.8%로 성인지 예산현액 3,847억원 중 3,801억원을 집행하였다. 내역사업별로는 총 21개 사업 중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등 19개 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사업 등은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110	110	100.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콘텐츠 기업 지원 육성(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868	868	100.0
	게임산업육성			
	- 게임인재원 운영	5,204	5,204	100.0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조성(방송분야 노무·성평등 교육)	22	22	100.0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1,100	1,100	100.0	

황종률 예산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인생나눔교실 운영	3,339	3,319	99.4
	예술인 창작안정망 구축	82,750	82,678	99.9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4,167	3,945	94.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7,128	77,125	100.0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1,381	1,347	97.5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06	1,110	92.0
	일반회계 소계(11개 사업)	177,275	176,828	99.7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2,200	2,200	100.0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200	1,200	100.0
	특별회계 소계(1개 세부사업, 2개 내역사업)	3,400	3,400	100.0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47,003	47,001	100.0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지원	14,090	10,325	73.3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 은퇴선수(선수진로)지원	1,248	1,075	86.1
	우수선수양성지원			
	- 국가대표 훈련지원	68,670	68,670	100.0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9,490	9,490	100.0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체육인재 양성	906	906	100.0
	태권도 진흥			
- 태권도 평화봉사단 해외파견	100.0	96	96.0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17,633	17,633	10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9,212	9,200	99.9
관광진흥 개발기금	한국관광 해외광고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16,446	16,446	100.0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11,414	11,414	100.0
	MICE산업육성지원			
	-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400	382	95.5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영화발전 기금	영화정책지원			
	- 공정한경사업(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지원)	350	349	99.7
	-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영화인 역량강화교육지원	7,112	6,918	99.3
기금 소계(13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		204,074	199,905	98.0
합계		384,749	380,134	98.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25개(80.6%)의 목표를 달성하고 6개는 미달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31	25	6	80.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만족도(점)	90.8	93.2	달성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콘텐츠 기업 지원 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여성 참여율(%)	50	38.8	미달성
게임산업육성				
- 게임인재원 운영	남성교육생 교육만족도(점)	80.0	95	달성
	여성교육생 교육만족도(점)	80.0	95.5	달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조성 (방송분야 노무·성평등 교육)	성평등교육 참여자 수(명)	1,683	3,333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정도(점)	84	87.2	달성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인생나눔교실 운영	인생나눔교실 멘토 양성 평등 인식 제고 정도(점)	87	89.1	달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여성 참여자 만족도(점)	83	83	달성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참여자 성평등 교육 만족도(점)	80.0	83	달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양성평등 인식 제고 정도(점)	86	94.44	달성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장학생 만족도 조사 및 성별 만족도 차이(%p)	5	3.7	미달성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참여 만족도(남성)(점)	84	88.8	달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참여 만족도(여성)(점)	84	93.6	달성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제작기원 기업의 여성 창작자 비율(%)	24	19	미달성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여성 참여비율(%)	59.7	72.5	달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수혜자 만족도(%)	91.61	96.1	달성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지원	프로그램 여성 참여비율(%)	41.8	42.2	달성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 은퇴선수(선수진로)지원	여성 선수경력자의 수혜 비율(%)	19.2	10.2	미달성
우수선수양성지원		50.0	56.1	달성
- 국가대표 훈련지원	국가대표선수 여성참여 비율(%)	43.5	44.5	달성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신고사건처리율(%)	50.0	57.7	달성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 체육인재 양성	여성체육인재 배출 실적(명)	250	269	달성
	교육생 만족도(점)	84.7	96	달성
태권도 진흥				
- 태권도 평화봉사단 해외파견	태권도 평화봉사단 여성참가자 비율(%)	32	40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국가대표 훈련지원)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여성 참여 비율(%)	32.6	32.6	달성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여성참여비율(%)	71	73.1	달성
한국관광 해외광고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한국관광 선호도 조사 여성 참여 비율(%)	50	49.3	미달성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여성창업자 대상 특화교육 수료비율(%)	85	86.8	달성
MICE산업육성지원 -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MICE 재직자 전문가 양성 과정 여성 참여비율(%)	69.1	70.9	달성
영화정책지원 - 공정한경사업(한국영화 성평등 센터 운영지원)	법률 상담건수(건)	16	16	달성
-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영화인 역량강화교육지원	여성영화인의 교육수혜비율(%)	50.2	46	미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5-2. 분석 의견

가. 성과지표 부적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수료 비율로 동 사업의 여성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은 관광분야 예비창업자와 초기 및 성장 단계 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관광벤처 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사업의 수혜가 성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여성창업자 대상 특화교육 수료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2025년도 성과 목표를 85%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인 동시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성과지표인 ‘여성창업자 대상 특화교육 수료비율’을 통해서는 관광분야 창업활동에 여성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성별 수혜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평등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특히,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여성 수혜자 비율이 27.1%로 정체된 점을 고려하면, 여성 수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여성창업자 대상 특화교육 수료비율(%)	85	86.8	현행 성과지표는 성별 수혜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평등 목표의 달성 여부를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7-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1개 세부사업에 3,138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개 세부사업 1,69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세부사업 1,447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8.0%로 성인지 예산현액 3,138억원 중 3,07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집행률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95.3%, 농기계임대 사업 96.8%를 제외하고 모두 100%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농촌교육훈련	24,303	24,303	100.0
	농촌고용인력지원	27,288	27,288	100.0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30,485	30,485	100.0
	농식품모태펀드출자	55,000	55,000	100.0
	귀농귀촌 활성화투자			
	- 귀농귀촌 교육	6,082	6,082	10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8,000	100.0
	발작물산업육성	11,472	11,472	1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6,500	6,500	100.0
	농기계임대	29,499	28,542	96.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13,662	108,301	95.3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1,555	1,555	100.0
특별회계 소계(11개 사업)		313,846	307,528	98.0
합계		313,846	307,528	98.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10개(90.9%)의 목표를 달성하고 1개는 미달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1	10	1	90.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농촌교육훈련	여성농업인 교육참여 비율(%)	44	44.7	달성
농촌고용인력지원	여성 농가주 지원 실적(명)	22,000	32,029	달성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농식품벤처육성지원 참여 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	27.1	27.9	달성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식품펀드 여성대표자 투자실적(명)	6	9	달성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중 여성 비율(%)	35.1	47.1	달성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신청자 중 여성비율(%)	28	22.6	미달성
발작물산업육성	발작물공동경영체 품목 조직화 생산량(출하량) 증가율(%)	12	12	달성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	9.9	12.6	달성
농기계임대	여성농업인 수혜비율(%)	38.6	40.9	달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선정 비율(%)	30	31.3	달성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여성참여 지구수 비율(%)	82	85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7-2. 분석 의견

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농업인의 농촌 유입 및 영농창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농업인 전체가 성별 구분 없이 사업수혜자가 된다. 이에 동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양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여성 농업인 선정 비율’을 설정하고, 2025년 성과목표로 30%를 설정하고, 실적은 31.3%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신청 및 선발과정에서도 성별을 구분하는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성별 분리 성과지표는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인구통계학적 결과를 사후적으로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성별 격차 완화나 성평등 수준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제외 필요 사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절성을 재검토 필요

8-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25개 세부사업에 5조 3,139 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2개 세부사업 4조 1,70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개 세부사업 9,004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4개 세부사업 2,038억원, 응급의료기금 1개 세부사업 96억원, 국민연금기금 1개 세부사업 324억 원이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9.9%로 성인지 예산현액 5조 3,189억원 중 5조 3,138억원을 집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자활사업			
	- 자활근로	719,545	719,545	10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5,006	43,268	96.1
	장애인활동지원	2,532,343	2,532,343	100.0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167,388	167,388	100.0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64,551	64,551	100.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887	1,887	100.0
	- 여성장애인출산지원	691	691	100.0
	발달장애인 지원			
	- 주간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306,910	306,910	100.0
	장애인일자리지원	234,510	234,510	100.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244	3,244	100.0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장애친화 산부인과	700	700	10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20,352	20,352	100.0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노인보호전문기관	12,740	12,740	100.0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60,803	60,803	100.0
일반회계 소계(12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		4,170,670	4,168,932	100.0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7,590	27,590	100.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63,953	63,953	1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4,770	534,650	100.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205,371	205,371	100.0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자율)	23,481	23,481	100.0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11,900	11,050	92.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3,366	33,365	100.0	
특별회계 소계(7개 사업)		900,431	899,460	99.9
국민건강 증진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178,235	176,175	98.8
	모자보건사업			
	- 성·생식건강증진	14,911	14,911	100.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상담전화	2,763	2,763	100.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 지자체 보조(진료비 지원)	9,966	9,966	100.0	
응급의료 기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 치료센터 지원	9,585	9,285	96.9
국민연금 기금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32,371	32,342	99.9
기금 소계(6개 사업)		247,831	245,442	99.0
합계		5,318,932	5,313,834	99.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보건복지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21개(70.0%)의 목표를 달성하고 9개는 미달성하였다.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30	21	9	7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보건복지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자활사업				
- 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비율(%)	50	47.1	미달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개소)	100	102	달성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수급자 중 여성장애인 비율(%)	38.4	38.0	미달성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점)	90	93.6	달성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 수혜자 만족도 (점)	90	92	달성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90.5	92.3	달성
-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	90	93.7	달성
발달장애인 지원				
- 주간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이용인원(명)	13,000	16,589	달성
	긴급돌봄 및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4.6	4.9	달성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수혜자 중 여성장애인 비율과 사업대상자 중 여성 장애인 비율 격차(%)	1.8	0.9	달성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여성피해자 지원비율(%)	54.3	100	달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장애친화산부인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개소)	12	11	미달성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취업확정 여성장애인비율(%)	41.2	41.9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명)	128,650	114,398	미달성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협력국 한국 초청 연수생 계획 대비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 (%)	100	100	달성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	90	97.2	달성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점)	92.4	93.1	달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여성 수혜자 비율(%)	82	80.7	미달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여성일자리 비율(%)	86.2	85	미달성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자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률(%)	97	100	달성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개소)	60	57	미달성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직전 3년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여성 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의 격차(하향지표)(%)	22.6	25	미달성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81.2	90.8	달성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1.2	94.1	달성
모자보건사업 - 성·생식건강증진	성·피임교육(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인원(회)	371 170000	374 170000	달성 달성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여성 등록자 비율(%)	15.6	15.9	달성
에이즈 및 성병예방 - 지자체 보조(진료비 지원)	HIV 감염인 체내바이러스 억제율(%)	96.2	96.9	달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 센터 지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 센터 설치(개소)	22	22	달성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계속 지원(백만원)	32,371	32,342	미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8-2. 분석 의견

가. 사업 대상과 범위의 확대 필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동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문화 조성 관점에서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은 6.9억원으로 860명에게 일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서울 50%, 지방 70%, 평균 67.0%)이다. 2025년 예산집행액은 6.9억원으로 여성장애인 806명(예상 수혜 대상의 93.7%)에게 6.9억원이 지원되어 성과목표(9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체평가에서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모두 여성이므로 성평등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유산 포함) 과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 대상을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성평등 증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²⁾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장애인(5,484명) 중 91.8%가 결혼 경험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1) 49세 이하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 15.1%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 두려워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4%가 유산 경험이 있으며 이중 50.8%가 인공 유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태아 이상’(30.8%), ‘자녀 원치 않음’(20.7%), ‘자궁 외 임신’(16.9%), ‘남편, 가족, 후견인의 반대로’(9.1%), ‘본인의 장애 때문에’(5.9%)로 나타났다.(이민경 외, 「2023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28쪽)

2) 김호연 외,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현황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2018, 58쪽

은 96.9%로 조사됐다. 자녀가 없는 경우, 그 이유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가 46.8%로 가장 높았다. 미혼 장애인은 8.2%였으며, 그 이유로 ‘본인의 건강과 장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장애 유형 중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이 선천적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임신 단계부터 출산까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과 범위의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사업 대상 및 범위의 재검토 필요 사유
여성장애인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동 사업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

3) 재가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장애 원인을 살펴보면, 선천적 원인은 4.4%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 장애에서 선천적 원인의 비중이 높았는데, 자폐성장애(해당 장애의 응답자 31.0%), 심장장애(24.2%), 지적장애(22.7%), 언어장애(21.6%), 안면장애(16.4%) 순이다.(이민경 외, 「2023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요약 8쪽)

9-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33개 세부사업에 8조 4,696 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3개 세부사업 1조 5,85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1,379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177억원, 고용보험기금 9개 세부사업 5조 9,453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6개 세부사업 7,517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개 세부사업 303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개 세부사업 10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8.0%로 성인지 예산현액 8조 4,696억원 중 8조 2,999억원을 집행하였다. 내역사업별로는 총 38개 사업 중 37개 사업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집행률이 7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716	716	100.0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6,464	36,046	98.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91,426	718,819	90.8
	해외취업지원	47,116	47,109	100.0
	취약계층취업촉진	11,223	11,119	99.1
	내일배움카드(일반)	596,161	593,833	99.6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 과징평가형자격제도운영	6,471	6,471	100.0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3,207	23,207	100.0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762	745	97.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4,561	33,440	96.8
	중장년층취업지원			
	- 중장년내일센터	18,343	18,343	100.0
	상생협력 확산지원			
- 상생임금 확산지원	5,918	5,918	100.0	
근로감독역량강화	13,326	13,114	98.4	
일반회계 소계(13개 사업)		1,585,695	1,508,881	95.2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137,864	136,394	98.9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다기능기술자	17,749	17,749	100.0
특별회계 소계(2개 사업)		155,613	154,143	99.1
고용보험 기금	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1,031	20,620	9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336,637	330,851	98.3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22,997	18,353	79.8
	내일배움카드(고보)	603,198	543,471	90.1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00,670	291,798	97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 하이테크형(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8,000	18,000	100.0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76,632	275,522	99.6
	기능인력양성및장비 확충(폴리텍)			
	- 소규모사업장훈련	1,270	1,270	100.0
	- 신중년특화과정	9,189	9,189	100.0
	-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100.0
	- 전문기술과정	7,287	7,287	100.0
	- 하이테크과정	12,150	12,150	100.0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1,998	11,998	100.0	
모성보호육아지원	4,319,511	4,309,155	99.8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 재활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377,377	377,377	100.0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	255,669	255,669	100.0
	장애인취업지원	33,411	33,411	100.0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26,452	26,452	100.0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52,856	52,856	100.0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장애인훈련기관지원	5,918	5,918	100.0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근로자건강보호 - 근로자건강센터	22,963	22,705	98.9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331	7,008	95.6
근로복지 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031	1,031	100.0
기금 소계(18개 세부사업, 23개 내역사업)		6,728,334	6,636,847	98.6
합계		8,469,642	8,299,871	98.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4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31개(68.9%)의 목표를 달성하고 14개는 미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45	31	14	68.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고용노동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여성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비율(%)	51.0	50.4	미달성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여학생 프로그램 수혜율(%)	53.7	53.7	달성
	여학생 참여자 만족도(점)	86.3	86.8	달성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된 청년 중 여성 비율(%)	48.7	45.5	미달성
해외취업지원	여성 해외취업자 비율(%)	51	48.9	미달성
취약계층취업촉진	성별 수혜율(%)	0.91	0.83	미달성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 여성 참여 비율(%)	34.5	39.7	달성
	일반고 특화훈련 여성 참여비율(%)	45.3	47.9	달성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여성수혜비율(%)	33.8	31.7	미달성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여학생 재학률(%)	25.1	25.5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여학생 교육환경 만족도(점)	81.7	82.6	달성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고용평등 상담실적(건) 전문성 강화 교육 횟수(회)	7,000 2	9,796 2	달성 달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인원(명)	11,784	19,170	달성
중장년층취업지원				
-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여성 취업률 (%)	28.3	37.5	달성
상생협력 확산지원				
- 상생임금 확산지원	임금직업포털 방문 수(회)	320,000	419,462	달성
근로감독역량강화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중 '성인지 감수성' 교과목 편성·운영 횟수(회)	6	7	달성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훈련인원 중 여성비율(%)	31.7	33.5	달성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다기능기술자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다기능기술자)(%)	8.8	9.7	달성
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장 수(개소)	1,000	2,551	달성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	80.4	76.9	미달성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수혜근로자 여성비율(%)	66	71.6	달성
내일배움카드(고보)	일반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	69.2	65.6	미달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36.3	33.6	미달성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여성노동자직업훈련참여율 (%)	45	46.6	달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 하이테크형(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	여성훈련참여비율(%)	9.7	11.5	달성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여성수혜비율(%)	28.8	31	달성
기능인력양성및장비 확충(폴리텍)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 소규모사업장훈련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소규모사업장훈련)(%)	19.3	18.1	미달성
- 신중년특화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신중년특화과정)(%)	20.6	20.2	미달성
- 여성재취업훈련	여성 교육훈련생 취업률 (여성재취업훈련)(%)	57.2	66.4	달성
- 전문기술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전문기술과정)(%)	9.5	8.8	미달성
- 하이테크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하이테크과정)(%)	28.5	20.8	미달성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개소수(개소)	101	107	달성
모성보호육아지원	남성육아휴직자수(명)	39,540	67,200	달성
	모성보호제도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83	83.2	달성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수혜여성 근로자 비율(%)	32.31	34.04	달성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	여성장애인 수혜 비율(%)	35.6	36.2	달성
장애인취업지원	여성장애인 취업률(%)	40.2	39.7	미달성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여성장애인 참여율(%)	40.7	38.7	미달성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여성장애인 비율(%)	37	37	달성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장애인훈련기관지원	훈련참여자 중 여성수혜비율(퍼센트)	35.4	35.7	달성
근로자건강보호				
- 근로자건강센터	여성근로자 이용률(%)	33.5	35.5	달성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여성노동자 및 취약계층 안전보건 연구실적(건)	7	7	달성
근로자복지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EAP여성노동자 수혜비율(%)	67.0	70.8	달성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4.64	4.82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9-2. 분석 의견

가. 성과지표 미달성으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고용노동부의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 중 ‘하이테크과정’ 내역사업은 2025년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으므로, 여성들의 사업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이테크과정’ 사업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이테크과정’은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 관련 신산업·신기술분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목표(28.5%) 대비 실적치(23.2%)가 5.3%p 미달되었으며, 2025년에는 목표(28.5%) 대비 7.7%p 미달된 20.8%의 실적치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여성 선호도가 낮은 공학계열 중심의 학과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5년간 사업 물량이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여성 훈련생 수요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적이 하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생 수(사업 물량) 확대가 여성 훈련생 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은 논리적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공학계열 교육훈련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훈련생 규모의 증감은 훈련생 성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동 사업의 성과목표 실적치는 2023년 30%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2025년 실적치는 2년만에 9%p 이상 하락하였다. 이는 수혜 대상자들의 선호도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보이며, 동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여성 훈련생 모집과 교육 단계에서 성별 격차 발생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조치를 취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하이테크과정)(%)	2023	28.5	30	달성
		2024	28.5	23.2	미달성
		2025	28.5	20.8	미달성

나.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은 근로감독관의 업무 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은 근로감독 인프라 강화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근로기준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하며, 체불임금 청산·예방,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수사 및 사업자 근로감독, 노사지도 등 근로감독관의 주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어 성별격차 완화 또는 성평등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성차별 행위 근절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동 사업이 성차별 사건 수사를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는 근로감독관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동 교과목의 편성·운영 횟수를 동 사업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 교과목 운영 예산을 포함한 근로감독관 교육 관련 예산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에 별도 편성되어 있어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의 내용과 성인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 필요 사유
근로감독 역량강화	근로감독 인프라 강화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근로기준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하며, 체불 임금 청산·예방,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수사 및 사업자 근로감독, 노사지도 등 근로감독관의 주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상 성별격차 완화 또는 성평등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10-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33개 세부사업에 1조 5,113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3개 세부사업 5,83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87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3개 세부사업 684억원, 양성평등기금 6개 세부사업 7,718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9.6%로 성인지 예산현액 1조 5,113억원 중 1조 5,051억원을 집행하였다.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247	247	100.0
	-성평등 공공외교 활성화(APEC)	613	606	98.9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9,345	9,345	100.0
	국제개발협력(ODA)	668	630	94.3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	1,833	1,717	93.7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18	286	89.9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3,940	3,839	97.4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주간	93	91	97.8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578	514	88.9
	여성사전시관	2,411	679	28.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1,796	11,693	99.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481	11,233	97.8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06	550	90.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1,002	934	93.2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1,045	924	88.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054	3,798	93.7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1,931	1,763	91.3
	-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정책확산	110	110	100.0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707	707	100.0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140	140	100.0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5,518	4,634	8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10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 양성	312	312	100.0
	가족역량강화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590	1,291	81.2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2,029	98.0
	아이돌봄지원	475,028	474,975	100.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 친화 지원사업	830	830	100.0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100.0
일반회계 소계(23개 세부사업, 28개 내역사업)		583,421	579,032	99.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87,713	87,439	99.7
특별회계 소계(1개 사업)		87,713	87,439	99.7
청소년육성 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932	4,932	100.0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30,384	100.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32,555	98.4
양성평등 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37	19,021	99.9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2,701	98.9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8,123	8,071	99.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52,825	10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2,711	99.6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877	145,404	99.6
기금 소계(9개 사업)		840,158	838,605	99.8
합계		1,511,292	1,505,044	99.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4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40개(87.0%)의 목표를 달성하고 6개는 미달성하였다.

[성평등가족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 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 달성률(B/A)
46	40	6	87.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8.2	78.5	미달성
- 성평등 공공외교 활성화(APEC)	APEC 여성경제회의 참가자 수(명)	200	320	달성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100	100	달성
국제개발협력(ODA)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231	226	미달성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확산(건)	570	675	달성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률(%)	89.4	92.1	달성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반영률(%)	75.4	82	달성
양성평등문화확산				
-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주간 행사참여자 수(명)	500	500	달성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수(개)	160	188	달성
여성사전시관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33,453	43,098	달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교육실적(명)	160,087	349,804	달성
	교육효과성지수(점)	89.29	89.913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건수(건)	10,843	16,913	달성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재 DB 활용도(%)	36	38.2	달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AA 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률(%)	38.5	38.96	달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상담 모니 터링 1인당 평균 지원 건수(건)	72.2	145	달성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과제 이행률 (%)	80	83.2	달성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건)	278,275	352,103	달성
- 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정책확산	여성폭력 피해지원 정책 국민 체감도(점)	3.32	3.42	달성
-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수료자 수(명)	11,790	13,917	달성
-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성희롱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 참여기관 수 (개)	110	110	달성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정보제공 효과성(점)	77.7	87.3	달성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점)	85	85.9	달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88	91	달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이수자 수(명)	5,752	6,360	달성
가족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만족도(점)	80.1	90.8	달성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수(개)	6,700	6,971	달성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가구)	92,000	159,804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가족 친화 지원사업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360	269	미달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 이행률(%)	48	47.9	미달성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6.2	87.9	달성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68.4	77	달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1,612	1,885	달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5	96	달성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성별만족도(여성)(점)	83.5	84.2	달성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성별만족도(남성)(점)	82.5	83.8	달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률(%)	48	48.8	달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건)	760	746	미달성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 서비스 만족도(점)	92.4	95.4	달성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4.2	97	달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천건)	998	906	미달성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북한이탈 여성 포함) 지원 실적(건수)	185,794	198,190	달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점수)	94.2	95.9	달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만족도(점)	80.9	83.9	달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 만족도(점)	80.7	83.0	달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센터(건강센터 포함) 이용자수(천명)	8,975	11,087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10-2. 분석 의견

가.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 인재풀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의사결정 참여 확대, 기업 내 성별 다양성 교육, 여성경제활동 관련 정책기반 마련 등을 포괄하는 사업이나, 성과지표와 성평등 효과분석이 여성인재DB 활용 실적에 한정되어 사업 전체의 성평등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동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기반 조성 및 여성의 관리직 진출 지원, 정부위원회 위원·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분야 진출 지원, 기업 내 다양성 확대 교육 등을 통한 공공·민간 부문 성별균형 제고로 제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 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성인재 DB 활용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해당 성과지표는 여성 인재풀 확충 내역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기업 다양성 교육을 통한 민간부문 조직문화 개선 효과, 정부위원회 성별균형 관리의 실효성, 여성경제활동백서의 정책 활용 효과 등 다른 주요 내역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평등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2025년 예산 증액은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내역사업 확대에 따른 것인데, 해당 내역사업의 성과가 현행 대표 성과지표나 성평등 효과분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은 성과관리의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인재 추천 후 실제 위촉·임명 등 사회참여로 이어진 비율, 정부위원회 법정 성별비율 준수율 또는 개선권고 이행률, 기업 다양성 교육 참여기업의 제도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거나, 현행 지표를 유지하더라도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여성인재 DB 활용 실적 외에 공공·민간 부문의 성별균형 개선 성과를 보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재 DB 활용도(%)	36	38.2	사업의 전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성과지표 마련 필요

나. 사업의 실질적 수혜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현행 성과지표가 신청률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신청 이후 실제 바우처 이용 여부와 지원금 사용 실적 등 사업대상자의 실질적인 수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바우처 이용률과 바우처 사용률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생리용품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성과지표인 ‘신청률’은 신청 이후 실제 바우처 이용 여부와 지원금 사용 정도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원 대상자 23만 4,015명 중 신청자는 21만 2,979명으로 신청률은 91.0%였으나, 실제 바우처 이용자는 17만 6,905명으로 대상자 대비 이용률은 75.6%, 신청자 대비 이용률은 83.1%였다. 또한 바우처 생성액 158억 3,800만원 중 사용액은 122억 6,700만원으로 사용률은 77.5%였으며, 미사용액은 35억 7,100만원이었다. 이는 신청 실적과 실제 이용 실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지원 대상자 (A)	신청자 (B)	실제 이용자 (C)	바우처 생성액 (D)	바우처 사용액 (E)	신청률 (B/A)	이용률 (C/A)	바우처 사용률 (E/D)
234,015	212,979	176,905	15,838	12,267	91.0	75.6	77.5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동 사업의 세출예산현액 164억 2,500만원이 전액 지출되어 집행률이 100%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수혜자 수도 사업대상자와 동일한 23만 4,01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바우처 이용자는 17만 6,905명이고 바우처 생성액 대비 사용률은 77.5%이므로, 중앙부처의 지출액이나 보조금 교부액 및 지원 대상자 수만으로는 최종 수혜자의 실제 이용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회계상 집행실적과 실제 바우처 이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성인지 결산서의 수혜자 수도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대상자 대비 실제 바우처 이용률, 신청자 대비 이용률, 바우처 생성액 대비 사용률 등 실제 이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88	91	신청률은 제도 접근 여부만 보여주므로, 실제 바우처 이용률·실집행률 등을 반영한 성과관리 필요

다. 성과지표 설정 재검토 및 성별 수혜분석의 정확성 제고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의 경우, 2025년 성과지표의 실적은 ‘지원 실적 198,190건’으로 제시된 한편 성평등 효과분석의 수혜자도 ‘198,190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원 건수와 수혜자 수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 규모와 서비스 제공 실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수혜자 수와 지원 건수를 구분하여 성과관리 할 필요가 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 일시보호,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인권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결산서에는 실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의 지원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수혜자, 지원 실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효과분석’에서는 2025년 수혜자를 198,190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한편, 3개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는 ‘폭력피해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포함) 지원 실적’의 2025년 실적치를 198,190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평가에서도 2025년에 198,190건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성과지표의 지원 건수와 성평등 효과분석의 수혜자 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일 수혜자가 여러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 건수는 서비스 제공량을 나타내는 산출지표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수혜자 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지원 건수를 수혜자 수로 기재할 경우 실제 수혜 인원이 과대계상 될 수 있으며,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의 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사용되었는지, 1인당 평균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 수혜 규모가 실제로 확대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수혜자 수와 지원 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 건수는 상담, 의료·법률지원, 보호, 심리치유, 자립지원 등 유형별 산출지표로 별도 관리하고, 실수혜자 수와 함께 1인당 평균 지원건수 등을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실적(건)	185,794	198,190	성평등 효과분석의 수혜자 수 (198,190명)가 성과지표 실적 (198,190건)과 동일하여, 실수혜 인원과 지원 건수를 구분하여 성과를 관리할 필요

11-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1개 세부사업에 239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개 세부사업 158억 6,2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개 세부사업 81억 3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5.4%로 성인지 예산현액 239억 6,500만원 중 228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이 60.6%로 가장 저조하며, 이외 모든 사업의 집행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 회계	해양수산신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2,020	1,996	98.8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5,250	5,250	100.0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305	305	100.0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190	190	100.0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360	360	100.0
	해사고등학교 지원	6,105	5,829	95.5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180	180	100.0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1,452	1,452	100.0
	일반회계 소계(7개 세부사업, 8개 내역사업)	15,862	15,562	98.1

황소정 경제분석관(sjhwang@assembly.go.kr, 6788-4656)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단체역량강화, 여성어업인포럼	110	110	100.0
	-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343	343	100.0
	어업인의삶의질향상			
	-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	1,172	710	60.6
	어업경영체등록	4,315	3,983	92.3
	어업인안전보험 - 보험료 지원	2,163	2,163	100.0
특별회계 소계(4개 세부사업, 5개 내역사업)		8,103	7,309	90.2
합계		23,965	22,871	95.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해양수산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9개(69.2%)의 목표를 달성하고 4개는 미달성하였다.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3	9	4	69.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해양수산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유치 지원				
-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여성구직자 참여율(명)	43.8	44.8	달성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 센터	수해기업 중 여성대표자 비율(%)	17.0	25.5	달성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여성 수혜자 비율(%)	5.9	5.7	미달성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여성 선박관리전문가 참여비율(%)	25.3	21.1	미달성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여성 청년해기사 선발비율(%)	7	9.5	달성
해사고등학교 지원	여성 입학생 수(명)	20	25	달성
해양수산연수원지원				
-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여성 해기사 취업생(명)	7	9	달성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여성 수혜자 비율(%)	36.8	38.9	달성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 단체역량강화, 여성어업인 포럼	여성참여비율(%)	80	98	달성
-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여성어업인 채용 성사율(%)	30	25.7	미달성
어업인삶의질향상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 검진	건강검진 실적(명)	1,418	1,537	달성
어업경영체등록	여성공동경영주 증가율(%)	3	3	달성
어업인안전보험				
- 보험료 지원	여성어업인 가입자 수(명)	10,927	10,159	미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11-2. 분석 의견

가. 성과지표 부적절

해양수산부의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실질적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인력 양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여성구직자 참여율(%)로 2025년 성과지표로 43.8%를 설정하였고, 실적은 44.8%로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여성구직자 참여율은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전체 참여자 대비 여성 참여자의 비율(766명/1,709명)’로 산출되어 실제 해양수산분야의 여성일자리 증가 등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 실제 여성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 2023년~2024년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¹⁾에서 연속하여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동 사업의 대안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성과지표 부적절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지표 부적절 이유
해양수산 신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현행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실질적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인력 양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

1)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24. 221쪽;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25. 124쪽

12-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23개 세부사업에 9조 5,278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3개 세부사업 1조 2,298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 71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9개 세부사업 8조 2,909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99.6%로 성인지 예산현액 9조 5,278억원 중 9조 4,9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사업별로도 모두 99%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567,983	567,983	100.0
	공정·품질기술개발(R&D)	4,675	4,675	100.0
	창업성장기술개발(R&D)			
	- 디딤돌	106,500	106,260	99.8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25,300	25,300	100.0
	여성기업육성	10,485	10,485	100.0
	장애인기업육성	10,597	10,597	100.0
	마케팅지원사업	21,827	21,827	100.0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 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416,226	416,226	100.0
	중소기업 재기지원			
	- 중소기업 재기지원	16,629	16,629	100.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 지역창업특화지원	5,916	5,916	100.0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벤처기업일자리지원	1,970	1,970	100.0
	- 여성벤처활성화	1,500	1,500	100.0
	산학협력인력양성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27,675	27,663	100.0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2,462	12,462	100.0
일반회계 소계(13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		1,229,745	1,229,493	100.0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창업인프라지원			
	- 창업보육센터지원	7,110	7,108	100.0
특별회계 소계(1개 사업)		7,110	7,108	100.0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신성장기반자금(용자)	1,311,110	1,311,110	1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1,835,800	1,835,800	100.0
	창업성공패키지	100,031	99,996	100.0
	재도약지원자금(용자)	750,100	750,100	100.0
	연수사업	23,785	23,710	99.7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5,172	5,142	99.4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19,288	19,288	100.0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지원)	25,625	25,625	100.0
	소상공인지원(용자)	4,220,000	4,184,200	99.2
기금 소계(9개 사업)		8,290,911	8,254,971	99.6
합계		9,527,766	9,491,572	99.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2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23개(82.1%)의 목표를 달성하고 5개는 미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28	23	5	82.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중소벤처기업부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7.3	8.4	달성
공정·품질기술개발(R&D)	여성기업의 인당생산성 향상(%)	16	162.2	달성
창업성장기술개발(R&D)				
- 디딤돌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15	17	달성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여성기업 지원비율(%)	14.8	22	달성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 평균매출액 증가율(%)	23.5	23.5	달성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기업육성 지원수혜자 중 여성대표자 비율(%)	22	28.1	달성
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	16.8	22.2	달성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사업선정 여성 비율(%)	19.9	18.5	미달성
중소기업 재기지원				
-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선정 여성비율(%)	19.5	22.9	달성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 지역창업특화지원	지역창업특화지원 여성 CEO 비율(%)	28	34.9	달성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여성인력채용률(%)	36.1	39.7	달성
- 여성벤처활성화	여성스타트업 수혜자(개사)	30	34	달성
	운영기관 투자유치(건)	20	21	달성
	여성 예비창업자 수혜자(명)	30	30	달성
	여성 예비창업자 창업률(%)	85	100	달성
산학협력인력양성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취업·산학맞춤반 여학생 참여비율(%)	41	44.2	달성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여성인력 채용지원비율(%)	33.2	28.1	미달성
창업인프라지원				
-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여성 CEO 비율(%)	24	25.7	달성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여성기업인 수혜금액 비율(%)	11.3	13.9	달성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여성기업인 수혜금액 비율(%)	15.5	19	달성
	여성기업인 수혜자 비율(%)	17.2	22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창업성공패키지	여성창업자 수혜비율(%)	31.2	36.2	달성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여성기업의 수혜금액 비율(%)	12.3	9.8	미달성
연수사업	여성 교육생의 참여비율(%)	26.5	32.2	달성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여성 취업자 수혜 비율(%)	32.3	33.2	달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중 여성 수혜율(%)	61.9	63.4	달성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여성 참여율(%)	70	48.9	미달성
소상공인지원(융자)	여성 소상공인 수혜비율(%)	43.5	40.9	미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12-2. 분석 의견

가.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사업관리 강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신진연구인력채원지원’, ‘소상공인지원(용자)’ 사업은 목표치에 비해 실적치가 다소 미달하고,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여성기업인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성인지 사업의 일부는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에 다소 미달하고 실적치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해당 사업은 일반회계 소관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신진연구인력채원지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관 ‘소상공인지원(용자)’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2025년도에 성과목표에 다소 미달했고, 실적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동 사업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초격차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생존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사업선정 여성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성과목표(19.9%)에 미달했고, 실적치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2023년도 20.8% → 2024년도 20% → 2025년도 18.5%).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여성기업 비중이 낮아 참여율이 낮고 관련 예산 비중이 증가한 점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사업선정 여성 비율 실적을 제고하려면 기존 트랙 운영과 함께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및 언급된 개선방안]

세부사업 (내역사업)	연도	목표치	실적치	언급된 개선방안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패키지 (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2023	20.2	20.8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예비 창업패키지에서 여성창업자 별도 선정으로 성평등 관점 지향 지속
	2024	19.3	20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중 예비창업패키지 내 마련한 여성창업자 별도 트랙으로 성평등 관점 지향 지속
	2025	19.9	18.5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중 예비 창업패키지 내 마련한 여성창업자 별도 트랙을 지속 유지하여, 딥테크 등 기술창업 여성기업인의 비중 상승에 기여
신진연구 인력채용지원	2023	28	33	여성 연구인력 채용사업 우수성과 사례집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작 배포, 연구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유관단체 등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강화할 예정
	2024	30	29.4	중소벤처기업부 신진 채용지원 사업 등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 홍보를 강화, 유관단체 등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사업 참여 독려
	2025	33.2	28.1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회, 신진 채용 사업 설명회 등에서 홍보를 강화, 대학 및 여성과학기술인 유관단체 등에 사업 참여 독려
소상공인 지원(용자)	2023	49.9	42.3	여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적용 지속 및 여성기업 협·단체에 자금 홍보 추진
	2024	49.7	38.4	여성경제인 협·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정책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2025	43.5	40.9	여성경제인 협·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5.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4.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사업에서도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동 사업은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여성인력 채용지원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설정한 성과목표인 30%와 33.2%를 각각 달성하지 못했다. 성과목표는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2023년도 33% → 2024년도 29.4% → 2025년도 28.1%).¹⁾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여성과학기술인 고용이 저조한 점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개선사항으로 연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회 등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단체 등에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고만 밝히고 있어 채용 지원비를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상공인지원(용자)’은 3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3년 연속 실적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여성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시 0.1%p 감면해주고 있으나, 신용, 재무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심사하고 있어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향후 개선사항으로 여성경제인 협·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 확대만을 연례적으로 밝히고 있어, 여성 소상공인 수혜비율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정규직 여성 비율이 각각 21.7%, 23.5%, 19.5%인 것을 볼 때 ‘25년 실적치 28.1%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실제 달성 수준 대비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 실적치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성인지 사업 중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제 달성 수준 대비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성인지 목표의 달성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여성창업자 수혜비율’을 설정하였는데, 최근 5년간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동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의 전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에 대한 가점부여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성창업자 신청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실적치는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어, 실제 여성기업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의 여성창업자 수혜비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8.2%, 30.7%, 30.6%, 38.3%, 36.2%로 성과목표를 각각 6.8%p, 6.6%p, 4.6%p, 7.6%p, 5.0%p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동 사업은 최신 실적치의 경향을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연도	성과지표	목표치(A)	실적치(B)	차이(B-A)	달성여부
2021	여성창업자 수혜비율(%)	21.4%	28.2%	6.8%p	달성
2022		24.1%	30.7%	6.6%p	달성
2023		26.0%	30.6%	4.6%p	달성
2024		30.7%	38.3%	7.6%p	달성
2025		31.2%	36.2%	5.0%p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5.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4.

13-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2개 세부사업에 1.7억원이 편성되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개 세부사업 2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2.5%로 성인지 예산현액 1.7억원 중 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성차별 예방 사이버 과정’)은 집행률이 100%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성차별 예방 사이버 과정	11	11	100.0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 성평등 기반조성	162	149	92.0
일반회계 소계(2개 사업)		173	160	92.5
합계		173	160	92.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2개(100.0%)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2	2	-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국가인권위원회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성차별 예방 사이버 과정	성차별 예방과정 수강인원 수(명)	57,177	255,382	달성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 성평등 기반조성	성평등 및 여성인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 건수(건)	4	4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13-2. 분석 의견

가.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예방 사이버 과정’ 사업의 성과지표인 ‘성차별 예방 과정 수강 인원수’는 목표치가 실적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혜자 집계 범위의 연도별 불일치로 성과 측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성평등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백만원으로 집행률은 100.0%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성차별 예방과정 수강 인원수(명)’로, 2025회계연도 실적치는 255,382명으로 목표치(57,177명)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목표 40,111명 → 실적 163,371명)에 이어 2025년에도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약 4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목표치가 실적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24년에는 실적치가 54,711명으로 전년(163,371명) 대비 급감하여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 2025년 자체평가에서 차별예방교육, 차별금지의 이해 등 관련 과정 수강인원을 수혜자에 포함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2024년의 미달성은 성과 개선의 후퇴가 아니라 연도별 수혜자 집계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집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관련 과정을 포함한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사유
성차별 예방 사이버 과정	공무원·교사 및 일반시민 대상 성차별 예방 사이버 교육 운영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목표치(57,177명)가 최근 실적(2023년 163,371명, 2025년 255,382명) 대비 현저히 낮으며, 수혜자 집계 범위의 연도별 불일치로 성과 측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집계 기준 통일 및 실적 추이를 반영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14-1. 현황

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경찰청 성인지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총 6개 세부사업에 40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7.7%로 성인지 예산현액 406억원 중 397억원을 집행하였다. 내역사업별로도 모든 사업에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약자대상범죄 피해조사지원(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 등 6개 사업은 95~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약자보호활동-스토킹 예방교육’은 9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 사회적약자대상범죄 피해 조사지원(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1,299	1,291	99.4
	- 사회적약자대상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여청 수사관 교육)	222	219	98.6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600	583	97.2
	사회적약자보호활동			
	-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협의체 운영	179	179	100.0
	- 스톱킹 예방교육	163	151	92.6
	- APO 시스템 유지보수	161	159	98.8
	경찰인재개발	6,597	6,515	98.8
	신임순경교육	30,821	30,003	97.3
경무인사지원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교육프로그램 운영	216	216	100.0
	- 성평등 의제 확산	21	21	100.0
	-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50	50	100.0
	- 성평등 위원회 운영	20	20	100.0
	- 치안정책 성 주류화 제도 운영	95	95	100.0
일반회계 소계(6개 세부사업, 13개 내역사업)		40,444	39,502	97.7
합계		40,444¹⁾	39,502¹⁾	97.7

주: 1)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예산현액과 집행액의 합계액이 각각 40,633백만원 및 39,69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청 확인 결과 이는 오키이며, 올바른 금액은 각각 40,444백만원 및 39,502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5년 경찰청은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 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12개(92.3%)의 목표를 달성하고 1개는 미달성하였다.

[경찰청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지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3	12	1	9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경찰청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역량강화				
- 사회적약자대상범죄 피해 조사지원(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의무대상자 외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율(%)	12.3	17.1	달성
- 사회적약자대상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여청 수사관 교육)	민간전문가 참여 교육 횟수 (횟수)	2	2	달성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삭제·차단 지원 건수(건)	42,905	52,643	달성
사회적약자보호활동				
-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협업체 운영	사회적 약자 지원건수(건)	10,706	13,166	달성
-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콜백 및 모니터링 건수(건)	223,337	341,093	달성
- APO 시스템 유지보수	재발우려대상자 모니터링 비율(%)	400	291	미달성
경찰인재개발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수료 경찰관(%)	4.31	4.46	달성
신임순경교육	성평등 인식 향상도(점수)	3.75	4.09	달성
경무인사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평등 교육정착도(%)	93.4	93.95	달성
- 성평등 의제 확산	젠더통합간담회(회)	46	75	달성
-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협업체 운영(회)	4	4	달성
- 성평등 위원회 운영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달성
- 치안정책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94.6	96.5	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6.

14-2. 분석 의견

가.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경찰청의 ‘APO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성과목표 실적치가 291%로 목표치인 400%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개선함으로써 사업 성과와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하고 재발우려대상자(여성·아동·노인)를 선정·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APO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다년간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의 입력·관리·조회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동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재발우려대상자 모니터링 비율(%)’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400%로 제시하였다. 2025년 재발우려대상자는 40,045명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총 160,180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모니터링 건수는 116,716회에 그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43,464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과목표 미달성의 원인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정책수립으로 인해 재발우려대상자 감소 및 관리등급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발우려대상자 모니터링 비율’ 실적치인 291%는 재발우려대상자 1인당 연평균 모니터링 횟수가 3회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발우려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성과지표에서 기대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모니터링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2025 성과		성과지표 개선 필요 사항
		목표	실적	
사회적약자보호활동 (APO 시스템 유지보수)	재발우려대상자 모니터링 비율(%)	400	291	성과 목표치를 달성함 으로써 성인지 예산사 업의 성과관리 신뢰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결산분석시리즈 V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6)

ISSN 2983-2888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044-10

ISSN 2983-288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